



YWCA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1922년 기독 여성들이
세상을 바꾸고자 창립한 한국YWCA가
2022년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시대의 부름에 응답하고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YWCA가 되겠습니다

한국 YWCA

2021년 9·10월호
SEP·OCT Vol.574

기획 한국YWCA 100주년, Go 100 Beyond 100
한국YWCA 100주년 엠블럼 발표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자문위원회에게 듣는다

이슈포커스
여성징병제를 둘러싼 설왕설래

기후정의 시민선언문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 수립하고 지금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성평등
YWCA 양성평등 임금의 날

YWCA 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08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 02.774.9702

강릉	033.651.1385	사천	055.833.2344	(사)인천	032.424.0524
거제	055.682.4950	서귀포	064.762.1400	전주	063.224.5501
고양	031.919.4040	(사)서울	02.3705.6000	(사)제주	064.711.8322
광명	02.895.1966	서천	041.951.6400	제천	043.645.2580
광양	061.762.0012	성남	031.708.2503	진주	055.755.3463
(사)광주	062.609.1300	세종	044.865.2432	진해	055.542.0020
군산	063.462.4491	속초	033.635.3523	창원	055.283.9488
김해	055.332.6000	(사)수원	031.252.5111	천안	041.575.0961
남양주	031.577.7762	(사)순천	061.744.7990	(사)청주	043.265.3700
남원	063.632.7002	안동	054.854.5481	춘천	033.254.4878
논산	041.736.7393	(사)안산	031.483.6536	충주	043.848.3240
(사)대구	053.652.0070	(사)안양	031.455.2700	통영	055.646.2547
(사)대전	042.254.3035	양산	055.367.1144	파주	031.945.5998
동해	033.531.3007	(사)여수	061.654.2161	평택	031.651.7701
마산	055.246.8746	(사)울산	052.247.3520	포항	054.274.4444
(사)목포	061.242.1611	원주	033.742.6090	하남	031.793.7771
부산	051.441.2221	의정부	031.853.6332		
부천	032.668.9700	익산	063.857.8910		



창립 99주년 YWCA 탈핵기후생명선언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하나님의 지구에서 자행된 인간 중심의 탐욕과 무한경쟁의 결과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자 질서이고,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생의 자리에서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개발과 성장의 논리는 여성과 미래세대, 사회 경제적 약자, 자연과 다른 피조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빼앗았고, 기후 불평등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태 정의를 실현하라는 예언자적 소명에 응답함으로써,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여성

기후 변화를 멈추는
변혁의 주체입니다.

청소년

우리는 다르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지역회원들

우리 지역을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과
자립 가능한 지역으로 바꿉니다.

한국YWCA 창립 99주년을 맞는 우리는 탈핵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이 시대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임을 고백하며, 100년을 이어 지속적인 우리의 실천과 행동을 통해 새로운 탈핵기후생명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탄소 금식 행동을 실천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과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업의 책임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고 탈석탄·녹색금융을 지지합니다.

하나, 우리는 탈핵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합니다.

하나,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행동에 함께 합니다.

2021년 4월 19일

한국YWCA연합회

2021.9·10 한국YWCA



표지이야기

세계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9월 25일 기후위기 집중행동으로 거리에서 1인시위를 벌인 YWCA 회원들. '지금 당장 기후 정의'

2021년 11·12월 주요일정

- 11월 4일 월례기도회
- 11월 10일 YW/YM 국제친선 및 기도주간 연합예배
- 11월 11일 제19회 한국여성지도자상 시상식
- 11월 13일 제20회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3
- 11월 23일 성평등 월간 토론회
- 11월 25일 씽크머니 우수강의 경진대회
- 12월 9일 성탄예배
- 12월 23일 제25회 좋은 미디어콘텐츠상 시상식

제57권 제4호 통권 574호

2021년 10월 27일 발행 (등록번호 마00096)

발행처 (사)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원영희

편집 김은주 배정미 이주영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사)한국YWCA연합회

디자인 굿플러스커뮤니케이션즈(주) 02)6080-9858

인쇄 제일프린텍

전화 02)774-0230 |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www.ywca.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ywcaKorea

구독료 연간 2만원 (총 6권)

계좌번호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04 **이달의 생각**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 함희경
- 05 **월례기도회** 지혜의 딸들, 한대로 구원하다 | 김성희

기획 한국YWCA 100주년, Go 100 Beyond 100

- 06 한국YWCA 100주년 엠블럼 발표
- 08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 자문위원회에게 듣는다

- 10 **기후위기와 여성**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봄 전환 사회로 | 이윤숙
- 12 **탈핵 기후위기** 정의로운 2030 탄소감축과 기후정의 | 황인철
- 14 **청년토크** 청년 주거 | 대학·청년Y
- 16 **성평등** YWCA 양성평등 임금의 날 | 이한빛
- 20 **로컬프렌들리 이야기3** 외지인에게 고향이 되어줄 동네를 찾아서 | 김수진
- 23 **이슈포커스** 여성징병제를 둘러싼 설왕설래 | 김엘리
- 26 **YWCA변화와 혁신4** YWCA 지역법인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송호영

- 28 **이달의 현장①** 미안마 민주주의를 위한 엽서캠페인
- 31 **이달의 현장②** MZ세대와 함께하는 2021 YWCA 여성평화순례
- 34 **이달의 현장③** 9.25 기후위기 집중행동의날
- 36 **이달의 현장④** 한국YWCA 정책협의회

- 38 **기후정의 시민선언문**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 수립하고 지금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 40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는 문화** 달리고, 싸우고, 이기는 여성들 | 오수경
- 42 **포럼** 기독교청년학생운동, '어제와 오늘의 끊임없는 대화' | 김수진

- 45 **연합회 소식**
- 50 **연합회 모금 현황**
- 51 **회원YWCA 소식**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함희경

(사)한국YWCA연합회 실행위원


한국YWCA에게 '100'이라는 단어는 지난 100년간 YWCA 여성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역사와 앞으로 100년을 넘어 YWCA 여성이 세상을 이끌어갈 역사의 숫자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100년을 바라보며 YWCA 구조의 변화를 직면한 지금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라는 표어 아래 지속가능한 YWCA를 위하여 YWCA 공동체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나누려 한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운동을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끄시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믿으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다. 잠언 기자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앞날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정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고 했다. 우리가 각종 회의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YWCA 운동을 평가하고 협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정책 의제를 정하고 공유한다. 이러한 모든 부분은 실행위원 등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풍부한 경험의 실무진의 의견을 가지고 진행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지난 100년간 우리 사회에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지혜나 훌륭한 인적 자원이 아니라 YWCA의 모든 회의와 행사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 서이지는 않을까?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운동과 정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순전한 믿음으로 그분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기도야말로 YWCA 운동의 핵심 요소가 아닐까 싶다.

또한, 서로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연대와 협력 공동체로서의 YWCA이다. 전도서 기자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

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라고 한다. 연합회와 52개 지역 YWCA는 예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을 목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 어느 한 지역이 어려워지면 서로 손을 내밀어 돕는 공동체로서, 함께하며 붙들어 일으키는 동무같은 공동체로서의 Y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수되는 신앙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100년의 역사 속에서 시간과 물질 그리고 기도로 YWCA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시는 많은 YWCA 선배들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과 헌신이 없는 재능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나누기 어렵다. Y안에서의 헌신은 온전한 신앙에서 나오며 그것이 선배들로부터 전수되는 신앙의 유산이라 여겨진다. 성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가르치며, 그것을 자손에게 가르쳐 대대로 알게 하라고 하였다. 선배들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 우리도 지속가능한 Y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사회에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선배들이 실천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후배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잡아주고 이끌어주는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해가는 Y 공동체가 되길 소망한다. 

지혜의 딸들, 환대로 구원하다

| 말씀 누가복음 7:35, 8:1~3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눅 7:35)



김성희

안산대학교 교목


성서에 나오는 우리 여성들의 아이콘적 조상, 기원은 누구일까요? 지혜(호크마, 소피아)가 바로 성서의 여성적 조상이자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서에 묘사된 지혜가 행한 일들을 보면, 전통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했던 일들입니다. 즉, 생명 탄생과 교육, 옳은 길 제시, 생명의 길로 인도, 음식 대접 등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신성한 존재가 지혜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여성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지혜의 후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35에 자신과 세례요한을 '지혜의 자녀'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롯한 지혜의 자녀들이 가장 잘하는 일 중의 하나는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도 특히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한 환대의 사역이라고 정의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누가복음 8:1-3은 예수님 시대에 여성들이 얼마나 제자로서 섬김의 모범을 보였는지, 역사적 신학적 깊이의 내용을 달리는 구절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시작은 7장 35절부터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의 자녀들의 옳은 행위들로 존재 자체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자녀들의 옳음을 예증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눅 7:36~50에 나오는 소위 죄 많은 여인의 향유 붓는 이야기입니다. 누가에서 기술된 향유 붓는 사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혜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환대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 향유 담은 귀한 옥합으로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바로

지금 정성으로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눅 7:44-45절의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식적으로 환대를 베풀었던 바리새인의 행위를 꼬집으셨고, 반대로 마음을 다해 최선으로 예수님을 환대한 여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의 환대로 구원을 이룬 지혜 자녀의 예입니다.

두 번째 모범이야기는 눅8:1-3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선교사역에 동행한 여성의 무리 중, 일곱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 수산나가 소개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섬긴 예수의 선교의 후원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물질을 베푸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권력을 쟁취하는 모종의 수직적 거래였으나 이 여인들은 오직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돌보면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됩니다. 이렇게 지혜의 자녀들은 진정한 섬김과 사랑은 상대방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돌보는 것임을 알고 실천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딸들의 후손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환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삭막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위로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손길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모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대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서, 환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YWCA 100주년, 회원이 만든다

| 한국YWCA 100주년 준비팀

회원에게 묻다 '100주년 어떻게 생각해?'

1922년 김필례, 김활란, 유각경 세 명의 선각자와 깨어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기독교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시작한 한국YWCA가 2022년 100주년을 맞이한다.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위해 힘써온 역사와 설립 정신을 되새기며, 새 시작을 준비하는 100주년을 기념하여 슬로건(주제)과 엠블럼을 제작했다.

YWCA와 함께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고, 1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일궈낸 주역은 회원이다. 전국에 있는 회원에게 100주년을 알리고, 회원 의견을 담아 주제와 엠블럼을 만들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YWCA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색상과 이미지', '한국YWCA 100주년 키워드와 주제', '100주년 이후 한국YWCA가 추구할 모습'을 질문했다. 1차에는 7월 19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 438명이, 2차는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556명 총 1천명에 달하는 회원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변화를 만드는 물결, 희망의 무지개

YWCA를 대표하는 색상으로 파란색(279명)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무지개(60명), 초록색(32명), 노란색(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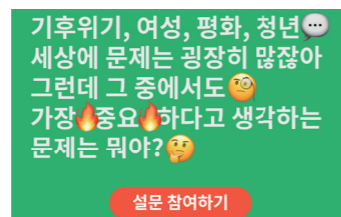
명) 등이 뒤따랐다. 해당 색상을 생각한 이유를 질문하자, 파란색에 응답한 회원들은 'YWCA 로고 색상이라서'(148명)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뒤이어 '청년과 젊음'(26명), '희망'(27명), '평화'(16명)를 상징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눈에 띄는 의견으로 '푸른 물결을 일으켜 만들어진 거대한 파도로 세상을 뒤흔들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있었다.

무지개 색상에 응답한 회원들은 '다양한 활동'(12명), '희망'(12명), '다양한 사람'(6명), '다양성'(6명) 등을 이유를 꼽았다. 회원들에게 YWCA는 '다양한 사람을 포용하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자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였다. YWCA는 생각하면 '비가 그치고 더 깨끗하고 맑은 세상이 펼쳐진다는 확신과 희망의 무지개가 떠오른다'는 답변도 있었다.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파란색을 엠블럼 색상으로 선정했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려준 회원 의견 '푸른 물결'과 '거대한 파도'에 착안하여 이미지를 도출했다. 두 번째로 많은 표수를 받은 무지개의 의미도 디자인에 담았다. YWCA 활동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만든다는 확신과 희망, 미래에도 계속될 다채로운 활동, 그리고 다양한 회원들과 함께하는 미래 모습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아래의 엠블럼이 탄생했다.



1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



- **중앙 '100'**: 100주년의 '100'을 형상화했다. '1'을 깃발처럼 표현하여 '앞으로 향해하는 배'의 느낌을 주었고, '00'은 파도가 커지는 형상으로 100년을 넘어 세상의 변화를 위해 힘차게 향해할 YWCA의 역동성을 표현했다.
- **상단 '무지개'**: 변화할 세상에 대한 희망과 확신, 다양한 회원들의 모습을 무지개로 표현했다.
- **하단 '물결'**: YWCA 주체성인 'W' (더블유) '여성'을 상징한다. 창립과 100주년 연도인 '1922·2022'를 안에 표기하여 100주년 엠블럼의 의미를 더했다.
- **전체 'C'**: 상단의 무지개와 하단의 물결이 이어지며 'C'(Christian: 기독교 정신)를 상징한다. 기독교 정신안에 여성과 다양성, 희망, 100주년을 담아내어 힘차게 향해하는 YWCA의 역동성을 표현했다.

다양한 사람과 함께하는 열린 공동체

이어진 '한국YWCA 100주년 주제'에 대한 응답으로는 '함께', '여성', '세상', '살리다', '다양한', '미래', '환경' 등의 단어가 도출됐다. 특히 '한국YWCA가 100주년 이후 어떤 곳이 되어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서 '국적, 인종, 나이, 학력, 성별, 종교, 계층 등이 존중되며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열린 공동체'이자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공통적이었다.

회원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YWCA 100주년 공동준비위원회·연합회 임원 연석회의, 한국YWCA 10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100주년 주제를 논의했다. 공동체성이 약화된 현 시대에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가치,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라는 단어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브랜

딩 업체의 컨설팅을 반영하여 '100'과 '여성' 두 가지 단어를 포함하기로 했다. '여성'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지만, 아직도 YWCA가 여성단체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에 우리의 정체성인 '여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한국에서 100년의 역사를 가진 여성단체는 YWCA가 유일하며, 이는 타 단체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100'과 '여성'을 살려야 100주년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

세 가지 단어를 포함하며 10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100주년 이후에도 계속될 YWCA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주제 시안 5개 '한국YWCA 100년 여성이 꿈꾸다, 세상을 바꾸다' '여성과 함께, 100년을 넘어' '한국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여성을 향해, 100년의 향해' '한국YWCA 100년, 여성과 함께한 시간 세상을 움직인 시간'이 제안됐다. 이 중에서 여성과 함께해온 YWCA 100년의 역사를 알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향해'하는 엠블럼과 이미지가 연상되는 문장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를 선정했다.

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 앞 문장 'YWCA 100년, 여성과 함께'는 지나온 역사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한국YWCA 100년은 '여성'과 함께한 역사이자, 세상의 변화를 향해 힘써 온 시간임을 본 문장을 통해 정리했다.
- 뒤따라오는 문구인 '변화를 향해'는 다가올 미래의 포부를 표현한다. 한국YWCA는 100년을 넘어서도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세상의 변화를 향해' 계속 할 것들을 다짐했다.

다양한 회원의 참여로 만들어진 100주년 주제와 엠블럼은 '한국YWCA 100주년의 주인공은 회원'이라는 선언이자, 전국의 회원들과 100년을 넘어 새로운 변화를 향해 향해할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긴 시간 YWCA가 시대 소명에 응답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던 힘은 회원의 관심과 참여였음을 되새기며, 회원과 함께 이어갈 100주년을 기대한다.

한국YWCA 100년 너머를 이야기하다

한국YWCA연합회는 회원, 회원YWCA와 함께 만들어가는 100주년을 만들기 위해 고문단, 자문단,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YWCA 100주년 자문단은 한국YWCA연합회 전 임원과 역대 사무총장, 증경회장모임의 역대 회장과 현 회장단, 해외회원YWCA 전 사무총장, 고문 총무로 활동한 선배활동가, 주요 단체, 기관의 대표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포함된 외부 위원들이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한국YWCA 100주년 준비단의 자문 위원들이 생각하는 '100주년 이후 한국YWCA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안과 기대를 들었다.

초창기 우리 선배님들은 조국과 민족의 자주독립과 농촌을 비롯한 사회계몽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 YWCA 정신에 입각하여 단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국YWCA가 되기를 바랍니다.

*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김경천 전 광주YWCA 사무총장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YWCA가 더욱더 건강하고 젊은 기독교여성운동체로 창립의 목적에 충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을 이루는 시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특히 청(소)년운동에 더욱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장래 일을 말하며 이상과 비전을 향해 더욱 젊어지는 한국YWCA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배영자 대구YWCA 증경회장

한국YWCA의 방향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입니다.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인류가 훼손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자연보호구역, 동식물 보호사업' 미래 YWCA활동가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YWCA와 가정을 연계하는 '차세대 YWCA가족 만들기', '에너지와 탄소줄이기 마일리지 적립 운동'을 제안합니다.

박금자 강릉YWCA 증경회장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걸어온 100년,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따라 다시 100년을 넘어 비상하는 YWCA, 성령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는 YWCA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세계여성평화순례,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사회적약자를 위한 돌봄공동체 힐링센터 운영확대를 제안합니다.

이종경 전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

YWCA가 정의, 평화, 생명운동의 정책을 기본으로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하며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역사와 문화 배경이 다른 이민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한반도 종전 평화운동에 힘을 모으고, 성평등한 문화확산 운동을 전개하며, 북한YWCA 개선을 노력하며, 어려운 국가를 지원하는 '한국Y봉사단 창설'을 제안합니다.

임국이 대전YWCA 증경회장

한국YWCA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백년의 역사 속에 청소년 여성 기독교운동체로서 시민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역할은 미래에도 변함없이 지속되리라 믿습니다. 100년 역사의 무게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이 시점, "YWCA는 사랑이다"를 되새기며, 시대를 앞서는 주제·정책개발·교육 전문가그룹을 육성하고, 회원YWCA의 연대프로그램을 강화하며, 활동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장혜숙 광주YWCA 증경회장

한국YWCA 100주년 이후 더욱 영성으로 무장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영성 강화로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YWCA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땅을 물위에 띄신 이,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시편136편)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YWCA되기를 바랍니다.

정동신 청주YWCA 증경회장

YWCA가 100년을 넘어서도 기독교여성기관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특히 청소년들이 YWCA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앙을 체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체의 조화로운 인성을 가진 기독교성리더십이 많이 배출되는 지도력의 요람이 되어 YWCA와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현자 청주YWCA 증경회장

젊은 운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젊은 운동체란 100년의 Y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키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으로 나이가 젊은 청년을 말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100년 이후의 Y를 이끌어갈 활동가, 지도력을 각 지역의 회원, 시민으로부터 발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탄소중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YWCA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져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YWCA가 나가야 합니다.

홍기자 전주YWCA 증경회장

지난 100년 동안 한국YWCA는 세상의 소금과 같이 세상에서 관심을 주지 않던 소외된 여성들을 돌보고 일으켜 세우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삶의 문제를 찾아내어 개선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많이 성장하여 YWCA가 하던 많은 복지사업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처음 YWCA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했던 모습을 되새겨보면서 기독교여성 운동의 새 틀을 짜야 합니다. 천국의 겨자씨 비유처럼 아직도 불공정하고 불평등함 속에 지내는 여성들을 일으켜 세울 꿈을 갖고 적극적으로 심어서 많은 이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황혜숙 전 한국YWCA연합회 임원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돌봄 전환 사회로

| 이윤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부소장

경제성장 환상과 그린워싱

작년에는 59일 장마로 기후위기 징후를 여실히 보여주더니 올해는 10월 이상 고온에 이어 급속한 한파로 가을이 사라져버렸다. 전세계가 기후 격변으로 밀을 비롯한 식량 생산에도 엄청난 차질이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위기감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지금도 더욱 중요시되고 우선시되는 것은 경제성장이다. 최근 텔레비전에 등장한 현대차의 '제너레이션원' 광고는 앞으로 탄생할 미래세대를 위해 자신들의 기후위기에 맞서기 위해 가장 앞장서는 기업인 것처럼 '지구 구원'이라는 감동의 쓰나미를 연출했다. 기업이 탄소중립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데 칭찬을 해주어야 마땅하지 않냐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건설은 베트남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주했음을 자랑한다. 겉으로는 기후위기를 해결할 최첨단 기업으로 그린워싱을 하면서 뒤로는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스템 속에서 탄소중립이고 뭐고 성장과 이윤만을 최우선시하는 이중적 모습 때문에 현대차는 해외언론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이제 일개인의 실천만으로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구 온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많은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된 지금의 경제성장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K-그린뉴딜계획도,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도 모두 기후위기의 원인인 경제성장 시스템이 가져온 극심한 불평등과 부정의 문제를 외면하고, 오직 과학기술과 자본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확산시키는 데 여념이 없다. 하지만 전기차를 타고 태양광 에너지를 쓰며 스마트팜 채소를 먹는다고 해서 기후위기가 가져올 파국을 막

고 그로 인한 삶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을까?

재난은 모두에게 닥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그 무게가 다르다. 이것은 이미 기후위기를 비롯한 재난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상식이 되었다. 특히 선진국에서 건 개발도상국에서건 가난한 여성들은 계급과 젠더 역압이 이중으로 작용해 재난으로 인한 삶의 고통이 심화된다. 어린이와 노인을 돌보아야만 하는 여성들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하기도 쉽지 않고 피난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남성 없이는 함부로 외출하고 이동할 수도 없는 극한 가부장사회에서 여성들은 재난에 속수무책이다. 기후위기로 사회가 악화해 심각해진 상황에서 가족을 돌보는 여성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진다. 물과 쌀감을 구하기 위해 먼 길을 나서야 하는 소녀들은 그나마 가던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이동중에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기후위기와 돌봄위기

환경단체 옥스팜의 『다보스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세계 억만장자 단 2,153명은 46억명 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고, 22명의 가장 부유한 남성들은 아프리카 여성 전체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15세 이상의 소녀와 여성들이 제공하는 무급 돌봄노동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면 최소 연간 10조8천억 달러에 이르고, 이는 글로벌 테크산업 규모의 3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돌봄'은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가난한 나라이건 부유한 나라이건 '돌봄'의 일은, 삶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의 취약함과 상호의존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 필수적인 '돌봄'이 사라진다면, 사회도 경제도, 정치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

며 그 어떤 문화적, 정서적 안정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전세계 많은 나라가 경제성장과 이윤창출을 삶의 핵심 원리로 보편화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의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기후위기 양상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또한 돌봄의 위기도 심화되었는데, 그것은 가난한 나라이건 부유한 나라이건 마찬가지이다. 돌봄은 언제나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무급노동이었으며 삶을 떠받치는 필요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폄하당해왔다. 그래서 돌봄노동은 언제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여성들을 비롯한 사회에서 주변화된 사람들이 떠맡는 노동이었다.

기후 위기로 인해 2025년까지 최대 24억명의 인구가 물 부족 지역에서 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또한 식량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질병을 증가시킬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돌봄 노동을 담당하는 여성들과 많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노동 시간을 부담시키고 스트레스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돌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돌봄이 위기 상황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여실히 경험하였다. 코로나로 문을 닫은 학교교육 때문에 생계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교육까지 다 부담해야 하는 패닉에 빠진 워킹맘들, 학교의 긴급돌봄 운영체제를 모두 떠맡은 돌봄교실 교사들, 방역으로 인해 해고되거나 노동시간이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사나 간병인들, 극단적 환경에서 장시간 일해야 하는 코로나 현장의 의료인들.

돌봄가치가 중시되는 사회로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그 원인이 되는 경제성장 가치가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토대가 되는 돌봄가치는 하찮은 것으로 치부되는 이 상황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만든다. 경제성장의 환상을 부추는 사회에서는 재난도, 질병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모두 '개인'의 문제이고 '자기책임'이 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더 많은 부를 가지기 위해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에 올라서고 경쟁력과 효율을 위해 플라스틱과 온갖 편리한 일회용품 사용은 당연시된다.


그나마 이루어져왔던 공동체의 돌봄도 공동체의 붕괴와



사막화된 삶터에서 멀고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아프리카 소녀들

더불어 사라지고 곳곳의 공적 자원은 민영화와 효율화의 옷을 입고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는 위협받으며 돌봄은 결국 '자본'의 문제가 되고 '개인'의 무한 책임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은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욱 증폭시키고, 또 기후위기의 원인이 되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시킨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듯, '탈성장' 없는 기후위기는 막을 수 없다. 더불어 '경제성장'의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돌봄'의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옥스팜의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가장 부유한 1%의 재산에 0.5%의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면 교육, 건강, 노인 돌봄 등의 분야에서 1억 1,700만 개의 새로운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 부족을 줄이는 데 필요한 투자액을 감당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기후위기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하여 탄소중립을 만드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근본적이고도 지난한 문제이다. 하지만 그래도 인류가 살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선 꼭 가야만 할 길이고 그래서 '돌봄'의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에 대한 수많은 탐색과 시도가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K-컬처, K-방역을 비롯하여 높아지는 위상을 자랑하는 한국은 언제까지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을 것인가. 이제는 정말 탄소중립을 넘어서 기후정의가 실현되고 돌봄가치가 중시되는 전환의 한국사회를 정말 절박하게 상상해야 하지 않을까? 

정의로운 2030 탄소 감축과 기후정의

|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0월 18일, 기온이 뚝 떨어진 가을날, 서울 한강대교가 가로지르는 노들섬에는 경찰 병력이 가득했다. 도로 주변을 따라 철제 펜스가 겹겹이 쳐져 있고, 경찰들은 한강대교를 지나는 시민들을 검문 검색했다. 이런 삼엄한 경비를 뚫고 70여 명의 기후활동가도 노들섬으로 모여들었다. 이날 오후 2시, 노들섬 다목적홀에서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2030온실가스감축목표와 2050탄소중립시나리오를 의결하는 회의였고, 이 회의에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도 참석하였다. 이날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대비 40% 수준의 2030년 감축 목표를 의결했다. 기후활동가들이 노들섬으로 모인 것은 이 목표가 가진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와 탄소중립위에 대한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NDC라 불리는 ‘2030 감축목표’는 무엇이고, 왜 기후운동단체들은 이 목표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가?

탄소중립은 갑자기 달성할 수 있는 것이아

2015년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자발적인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5년마다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한국도 2015년에 이어 작년 2020년 말 NDC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2020년 당시 제출한 한국의 감축량은 2017년 대비 24.4% 줄이는 것이었는데, 이 목표는 2015년에 유엔에 낸 수치와 다르지 않다.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도록 한 파리협정의 규정을 무시한 셈이다. 그 결과, 유엔은 한국 정부에 2030NDC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2020년 대통령이 나서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10년 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을 외면한 결과다.

탄소중립은 2050년 직전까지 마구 온실가스를 내뿜다가 2050년에 가서 갑자기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지구 온도 상승을 특정 온도 이내로 막기 위해서는,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 그래서 전체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중간 경로로서 지금부터 10년 후, 2030년까지 과감하고 충분히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30년 뒤의 먼 미래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보다, 당장 10년 뒤의 목표가 더 시급하다. 현 정부가 지금 당장 정책변화와 행동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2030감축목표는 향후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의 관건이 된다. 다시 말해, 기후위기로부터 위협받는 시민들과 지구 모든 생명의 안전한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급성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현실성 없는 탄소감축목표

그렇다면 한국은 2030년까지 얼마나 줄여야 하는 걸까? 대통령은 탄소중립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40% 감축목표가 “탄소중립의 강력한 의지표명”이라고 말했다. 과연 이 목표는 충분하고 과감하며 강력한 목표인가? 유엔 IPCC는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인 한국은 당연히 그 이상의 감축 책임이 있다. IPCC 권고는 한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8년 대비 40% 안을 들고 나왔다.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34.7%에 불과하다.

정부안은 시민사회와 산업계 양측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았다. 산업계와 보수언론들은 앞다투어 “대통령은 한마디

로 현실성 없는 감축목표를 만들었다, 산업계 의견이 반영 안 됐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쏟아냈다. 하지만 지금의 탄소감축 속도가 빠른 게 아니다. 이것은 산업계가 기후위기 대응을 무책임하게 지연해온 결과다. 산업계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다.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할 때, 한국의 기업은 안이하게 대처해왔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논의할 때마다 “시기상조다”라거나 “과도한 다이어트는 건강에 나쁘다”라는 식의 논리로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아 왔다. 사실 우리나라의 20개 기업이 배출하는 양이 국가 전체배출량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기업의 책임은 막중하다. 그럼에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기후를 희생시키며 그 피해를 시민들에게 떠넘겨왔다.

지구 온도 상승 1.5도 제한할 수 있어야

오히려 정부의 감축목표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있지 못하다. 10월 18일 노들섬에 기후활동가들이 내건 플래카드에는 “지금 당신들의 계획, 정말 기후위기 막을 수 있습니까?”라고 적혀 있었다. 정부안에 대한 시민사회 목소리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후위기를 막고, 1.5도 상승을 저지할 수 있는 감축목표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계획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정부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질문에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답을 내놓지 못한다. 정부의 현재 감축목표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잡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기후위기 해결을 담담할 수 없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2030년 감축목표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기후위기로부터 위협받는 시민들과 지구 모든 생명의 안전한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시급성이다.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그리고 어떻게 줄일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 지금 한국이 온실가스를 제대로 줄이지 않는다면, 가난한 나라와 미래세대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시장에 내맡기는 방식이나 탄소포집기술과 같이 불확실하고 잘못된 기술수단에 기댄 방법은, 정의롭지도 않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도 없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어떻게 줄이느냐는,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후위기에 맞서 보다 정의로운 세상으로

한국 정부는 10월 말 결정하는 새로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들고 11월 초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협약 체결 이후 30년이 다 되어가도록 기후변화를 해결하는 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전 세계 기후운동단체들은 COP26 회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소위 ‘전 세계 지도자’들의 무책임과 실패에 대한 항의와 저항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글래스고를 향하고 있다. 전 세계 풀뿌리 시민들, 노동자, 농민, 원주민, 여성 등이 함께 “불의한 시대는 끝났다.”라고 외친다. 기후위기에 맞서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친다. “1.5도 상승 저지, 탄소중립이 아닌 진정한 배출제로, 화석연료 채굴과 투자 중지, 시장과 기술 중심의 잘못된 수단 반대,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국제적 정의, 그리고 사회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화석연료에 중독된 사회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은 곧 보다 정의로운 사회, 시장과 자본이 공공재를 함부로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엇보다 아래로부터의 시민 참여와 행동만이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의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 관료와 각국의 지도자, 그리고 기업의 리더들에게 기후위기 해결을 맡길 수 없다. COP26의 회의장이 아니라 바로 회의장 밖에서 벌어지는 전 세계 시민들의 행동에 기대를 걸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정의롭지 못한 2030년 계획을 COP26에 들고 간다면,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다. 그린뉴딜, 탄소중립이라는 화려한 선언 끝에 불충분하고 부당하고 부정직한 감축목표치를 남길 것인가. 2021년 10월은 향후 10년을 좌우한다. 그리고 그 10년이 이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결정적인 시기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다. 



빛이 있으려고 하니 빛이 생기네



| 대학·청년YWCA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여가, 휴식, 식사 등 모든 것을 집 안에서 해결하면서 집은 삶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청년주거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청년들에게 이슈인 문제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청년들에게 이제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여가 생활까지 즐기는 공간으로써 의미가 더해졌다. 이번에는 YWCA 청년들 중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청년들을 모아 청년토크를 진행해봤다. 이번 청년토크 역시 가명으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안녕, 서울?

숨막힘 : 예전에 나는 집에서 잠만 자면 되니깐 집이 굳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부터 집에 반강제적으로 갇혀 있다보니 5평에 사는게 너무 숨막히더라고.

우울 : 맞아. 나도 처음 자취할때는 7평도 넉넉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살다보니 짐도 많아지고 가격 싼 곳을 찾다보니 낮에 집에 해도 안들고 그래서 삶이 점점 우울해져.

답답 : 나는 다른편 괜찮은데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음식해먹는 일이 많아지니깐 주방이 너무 좁고 화력도 안좋아서 너무 답답해.

양호 : 그래도 우리는 양호하지. 서울에 사는 1인 청년 가구 37%가 반지하나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에 산다더라.

우울 :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사는 집은 집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 않아? 그냥 작은 방 하나에 사는거지.

숨막힘 : 맞아. 나는 출퇴근 가깝게 하려고 5평 원룸에 살다가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경기도로 이사했어. 출퇴근은 2시간 걸리지만 그래도 집도 넓어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 같

더라. 난 집순이라 출퇴근 시간이 길어져도 넓은 곳에 살아야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어떤 집에 살아봤어?

고시원 : 나는 6개월 단기로 서울에 살게 돼서 집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계약기간이 애매해서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살아. 침대는 딱 한명 누울 수 있는 간이 침대고, 화장실이랑 세탁실도 공용이야. 3평 정도라 진짜 잠만 잘 수 있어. 아마 오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못 살 것 같아.

반지하 : 내 친구들 중에도 은근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많아. 나도 잠깐 고시원에 살았는데 창문도 손바닥만 하고, 여름엔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켜고, 중앙 난방이라 여간 불편한게 아니야.

고시원 : 나는 그래도 신촌에 살아서 한 달에 35만 원 정도인데 강남에 사는 내 친구는 고시원인데도 60만 원 난대.

옥탑방 : 나는 불법 증축된 옥탑방에 살았어. 옥탑이라 같은 돈이라도 그냥 집보다 방이 넓어서 선택했지. 그래도 웬만한 옥탑은 컨테이너 박스데 우리집은 벽돌로 지어져서 옥탑치고 엄청 덥거나 춥지 않았어. 난방비는 장난아니었지만.

반지하 : 반지하만큼 뻥센 곳은 또 없을걸? 반지하 살면 사람들 발만 보이고,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들더라. 나는 해안드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나? 생각했는데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았어.

옥탑방 : 나도 반지하 살다가 너무 못참겠어서 나왔잖아. 너무 숨해서 바닥은 매일 찢든찢든거리고, 물먹은 솜처럼 축 처져서 어디 병걸린 사람처럼 변하더라고.

반지하 : 그래도 옥탑보다 싸니깐 살았던 것 같아. 우리집 창문에 토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었어. 진짜 극혐이야.

고시원 : 우웻. 나는 처음 고시원으로 이사가는 날 부모님이

이사 도와주러 오셨는데 집가는 길에 속상해서 우셨대. 나는 잠깐 사는거라 별생각 없었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깐 나도 속상하더라. 계속 여기 사는 청년들 부모님은 오죽할까 싶어서.
옥탑방 : 그나저나 누가 더 좋은 곳에 살았나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웃기다. 우리 셋 다 좋은 주거지에서 산 걸 자랑하는게 아닌데 말이지?

입주하려면 자기소개서 써라

답답 : 최근에 동작구에서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서 논란이었잖아.

우울 : 맞아. 나도 제목만 보고 진짜 어이없어서 들어가서 읽어봤어.

답답 : 결국에는 오해라고 해명했지만 최초에 이 사실을 알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누가 더 가난한지 내기하는 듯한 내용이라 너무 화가 나긴 했어.

숨막힘 :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야?

답답 :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임대 주택 근황'이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떴어. 서울 임대 주택을 선정하는 방법에 2차 자기소개서 심사가 40%라고. 대놓고 지인들에게 특혜주는 거 아니냐, 청년들끼리 누가누가 가난한 걸 뽑내는 것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거든.

숨막힘 : 와... 이제 하다하다 임대 주택 들어가는 것도 자기소개서를 써야한다는 거야?

우울 : 결국 동작구에서 입주자들끼리 자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한 '공동체 주택'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한 취지였다고, 오해라고 말하긴 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청년들이 상심이 컸지.

답답 : 맞아. 지금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은 이제 꿈도 꿀 수 없는 거고 좋은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감지덕지인 마당이니깐 공정해야 하는 공공 임대주택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게 큰 이슈긴 하지.

우울 : 그래. 요즘 청년들은 내집 마련이 꿈이 아니라 더 나은집의 세입자로 들어가는게 꿈이라잖아.

숨막힘 : 죽고나서 납골당에 들어갈땐 집문서 없이 공평하

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로 위로받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답답 :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는 말이있잖아. 요즘 이 말씀을 비유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라고 하더라.

숨막힘 : 진짜 웃프다(웃기고 슬프다를 합친 합성어). 하나님은 몰랐을꺼야. 이 아름다운 땅에 건물주라는 또 다른 신이 생길 꺼라고...

우울 : 나는 간호사라 처음 상경했을 때 병원에서 사택에서 살게 해줬어. 근데 2년 뒤에는 무조건 나가야하거든. 그래서 최근에 집을 알아보는데 3교대다 보니깐 최대한 병원에서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해야해서 무려 2억이라는 빛을 졌어.

숨막힘 : 2억이라니 미쳤다... 직장인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빛이 2억이야...

우울 : 그래도 전세난에 전셋집 구한게 어딘가 싶어. 그나마 나는 직업이 안정적이라 대출이 나왔지. 요즘 대출받는것도 하늘의 별따기잖아.

양호 : 나는 얼마전에 전세 사기 당할뻔 했어. 월세가 감당이 안돼서 전세 찾아보다가 계약하려고 하는데 대출 금액이 그만큼 안나온거야. 다행히 계약서에 부동산 측에서 말해준 금액만큼 대출이 안나왔을 시 계약금을 100% 반환해준다는 조항이 있어서 다 돌려받았잖아.

숨막힘 : 다들 다행이다. 나는 아직 대학생이라 부모님이 보증금은 도와주셨고 월세는 내가 내고 있는데 한달에 50만원씩 나가니깐 알바를 해도 부모님 도움을 안받을 수가 없어.

답답 : 그래 맞아.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면 50만원 정도 버는데 그 돈으로 월세를 내면 생활비가 없고, 생활비로 쓰면 월세를 낼 수가 없지.

양호 : 청년 주거 문제는 영영 해결할 수 없는걸까? 계약기간이 다가오면 쫓겨날까 너무나무 무서워.

숨막힘 : 맞아. 쫓겨나는 것도 무섭지만 관리비나 월세를 또 얼마나 올릴지도 무서워.

우울 : 애들아, 우리에게 행복한 주거 생활이 오긴 할까...?

동일임금의날 제정 운동에서 양성평등 임금의날 운동으로

2021 양성평등 임금의 날

한국YWCA는 2021년 9월 2일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맞이하여 온라인 행사 및 전국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은 2020년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양성평등주간(9/1-9/7)의 목요일로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에는 9월 2일이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되었다.

한국YWCA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동일임금의 날 제정 및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책토론회, 공개토론회, 국회 방문, 동일임금의 날 입법청원, 전국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해왔으며, 국회의원 및 타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 제정에 기여하였다.

올해는 한국YWCA가 동일임금의 날 제정 운동을 통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 제정에 기여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운동 방향에 대해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시민들에게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에 본 행사는 1, 2부를 나누어 1부 온라인 컨퍼런스 2부 전국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1부 컨퍼런스에서는 2014년부터 한국YWCA가 전개해온 동일임금의 날 운동(서울YWCA 김예리 부장), 한국YWCA 운동에서부터 양성평등 임금의 날 제정까지의 입법과정(한국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운동 책임위원), 양성평등 임금의 날 제정 후 앞으로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한국노동사회연구소 황수옥 박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후에는 컨퍼런스 참가자가 함께 2021 양성평등 임금의 날 성명서를 낭독하였으며, 이후 거제, 고양, 군산, 남양주, 남원, 목포, 세종, 속초, 안양, 울산, 익산, 인천, 전주, 제주, 진주, 청주, 충주, 포항, 하남 등 19개 지역 회원YWCA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다.

한국YWCA의 동일임금의 날 제정운동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되었다. 매년 성별 임금 격차 수치를 공개하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일해야 하는 날을 계산해 동일임금의 날 제정 추구를 위한 거리캠페인과 서명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여러 여성-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비롯하여, 회원Y를

거점으로 시민사회에 성별임금격차의 실태를 알리고 고용현장의 성평등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온 것이다.

한국YWCA는 2014년부터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촉구하기 시작한 이래로, 2015년에는 전문가의 현황 분석과 과제 설정을 위한 '정책 워크숍'과 대국민인식제고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동일임금의 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발송했다. 특별히 법안발의에 참여한 125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동일임금의 날 제정 추구와 37%의 남녀임금격차를 알리는 인증샷을 찍어 SNS를 통해 홍보하는 고용평등주간 캠페인 '5월의 크리스마스'를 진행하였다.

2016년에는 20대 총선을 준비하며 총선 의제로 각 정당의 여성정책을 살피며 성별임금차별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으며,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고, 14개 회원YWCA에서 본부 단독 또는 여성인력개발센



터와 공동으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9월에는 대구YWCA, 서울YWCA, 여수YWCA, 창원YWCA가 참여한 가운데 동일임금의 날 제정 추구를 위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면담을 가져, 제20대 국회에 발의된 동일임금의 날 입법 제정 추구와 활동 협력을 요청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2017년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의 내용이 담긴 한국YWCA 정책요구서를 각 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하는 선거 대응운동이 전개되었다. 고용평등

주간에는 워크숍과 캠페인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현실을 알리고,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임금의 날 제정 목적과 의미, 추진 방안을 모색했으며, 32개 회원YWCA에서 회원YWCA 본부 단독 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공동으로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또 연합회에서는 여성 단체들과 공동으로 '남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2018년에는 '임금차별은 불법이다!'를 주제로 한 좌담회를 열었다. 문제해결의 당사자인 청년여성과 여성노동자, 취

업지원기관 관계자와 국회의원, 관련정부부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논의하였다. 또한 27개 회원YWCA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한 남녀동일임금운동과 페이미투(PayMeToo) 운동을 전개하였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유권자운동을 펼치며 동일 임금과 관련된 의제를 제시했다.

2019년에는 고용평등주간에 36개 회원YWCA에서 페이미투 운동이 펼쳐졌고, 토론회도 진행되었으며, 서명운동도 계속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온라인 캠페인과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특히 동일임금의 날 댄스 챌린지는 비대면 시대에 맞게 유튜브 공유를 통해 시민들에게 동일 임금의 내용과 중요성을 알릴 수 있었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의 제정 과정

처음 동일임금의 날 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제정하고자 하였다. 2013년 진행된 국회의원 여성아동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제18회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활동보고를 하며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로부터 법안이 통과된 것은 7년 뒤 2020년이다. 다만 고용노동부 소관법률인 남녀고용평등법이나 추후 논의되었던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소관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여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제정할 수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29일 양성평등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양성평등 임금의 날'은 비로소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으며 성별임금 통계 등 공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할 수 있었다.

제38조(여성의 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를 공표한다. (제38조제3항 신설)

성별임금격차 현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20년 기준 31.5%로 OECD 회원국 중 또 한 번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31.5%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수치이지만,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력단절·휴직·실업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가 여성 경제활동 환경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한국에서 성별임금격차를 유발하는 원인에는 교육, 훈련에서의 성차별, 근속연수에서의 성차별, 직종 분리를 통한 성차별, 고용 형태를 통한 성차별, 기업규모에 따른 성차별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지수는 일본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성별임금격차와 여성관리직 비율 및 이사회 임원 비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의 양성평등 임금 운동

여러 원인에 따른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역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성별임금공시제도를 통해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채용 및 인사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과 양질의 일자리 확보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현재 디지털 성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여성들이 디지털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시급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투명한 임금체계 구축,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력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의 성별임금격차 해소가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모든 노동환경을 개선해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여성들에게 보다 더 평등한 노동환경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에 양성평등 임금의 날은 평등한 임금 사회로 나아가는 첫 시작이 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YWCA는 앞으로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운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 양성평등임금의 날 성명서 |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5%(2020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또다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OECD 성별 임금격차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현재까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임금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1.5%의 성별 임금격차는 전년 대비 1%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휴직·실업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지표가 여성 경제활동 환경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20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9년 대비 0.9% 감소하였으며 고용률은 1.1%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0.4% 증가하였다. 성별 임금격차가 직장 근속연수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감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한국YWCA는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에 동일임금의 현실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 동일임금의 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개토론회, 국회 방문, 동일임금의 날 입법청원, 전국 캠페인, 온라인 캠페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성별 임금격차의 현실과 문제를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제 2020년 '양성평등 임금의 날'이 제정되면서 한국YWCA 동일임금의 날 운동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 폭 넓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신속한 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YWCA는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철폐를 위해 계속해서 정책제안 및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성평등한 세상을 이룰 것이다.

한국YWCA는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와 차별임금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1.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강화하라!
2. 투명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라!
3.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라!

2021년 9월 2일

(사)한국YWCA연합회

외지인에게 고향이 되어줄 동네를 찾아서

| 김수진

(사)한국YWCA연합회 간사·(주)로컬프렌들리 대표

YWCA청년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로컬프렌들리는 초기교회공동체 교제(행2:46)와 YWCA의 지역운동, 청년성에 기반을 둔 '로컬 커뮤니티 매니저먼트' 회사로 현대(Hospitality)와 휴먼터치(Human Touch)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의 커뮤니티를 디자인한다. 현재 군산 구(舊)도심에서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공간과 연계할 수 있는 커뮤니티 콘텐츠를 기획한다. 군산으로 떠난 YWCA청년들의 3번째 이야기를 이번 호에 싣는다.

군산에 정착한 외지인

군산에 정착한지 3년차, '군산에 정착한 외지인'이라는 로컬프렌들리(이하 로프)전용 꼬리말이 생겼다. 창업 프로젝트의 성과적인 측면에서 붙여진 인위적인 명칭이라 볼 수 있지만 타지역에서 창업도 힘든데 정착까지 한 용기에 대한 열렬한 응원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는 '지역 재생'과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비즈니스로 풀어내기 위해 '사업 완성'에 힘을 쏟기보다 '지역 정착'에 먼저 집중했다. 관광화된 곳이라 할지라도 지속 가능한 동네가 되도록 군산의 일상과 본래의 가치를 발굴하여 '지역 재생형 관광 콘텐츠'를 만들었다. 이때 외지인의 시각은 장점으로 작용했다. 관광화를 넘어 리빙화를 위해서는 먼저 외지인을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초대하고 지역과 현지 커뮤니티에 연결(link)시켜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역에 스며들어야 했다.

외지인에게 출신이 되어줄 거점공간을 찾아서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2019년 6월, 3개월간의 기본 창업교육이 끝났다. 본격적인 실천 돌입에 앞서 커뮤니티 콘텐츠를 자유롭게 실험해 볼 '차체 공간'이 필요했다. 군산 출신이 아니었던 우리에게 정착을 위한 '공간

이상의 공간' 즉, '출신이 되어줄 거점 공간'이 절실했다.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에서 제공된 '로컬라이즈 타운'이 있는 영화동은 관광화로 인해 이미 원주민들이 한차례 밀려난 곳으로 우리가 정착하고 싶은 '진짜 군산 동네'의 모습이 아니었다. 더불어 관광화된 영화동의 임대료는 초기자본 없는 청년 창업가가 오랫동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다. 영화동과 멀지는 않지만 원주민이 떠나지 않아 동네 자체의 이야기가 살아 있고, 우리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청년들이 있는 동네를 수소문했다. 그렇게 영화동 건너 개복동이라는 동네를 알게 됐다.

예술과 낭만, 슬픔과 쇠락이 공존하는 곳 '군산 개복동(開福洞)'

'하늘이 열리고 복이 떨어진다'는 의미의 개복동은 군산시 중앙부에 있는 원도심 중 하나의 동네다. 전북 최초의 극장이 있었던 개복동은 극장가를 중심으로 학교와 약기점, 양복점, 음식점, 신문사 지국 등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화려한 동네였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한국 현대 문단에 큰 영향을 끼친 문인부터 예술가가 넘쳐나던 '한국의 프랑스 파리'라 불리는 낭만 있는 장소였다. 한



개복동 모과심터에 모인 개복동 청년들



공간오픈과 지역정착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동네에 2개의 극장이 가까이 있었고, 극장들에 쇼가 들어오는 날이면 당시의 개복동은 어깨를 부딪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골목마다 사람들이 넘쳐났다. 크고 작은 식당과 술집들이 즐비하고 쇼핑, 오락 등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즐겨 찾던 개복동은 오랜 시간 군산 시민들의 시내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러한 동네의 반짝임도 잠시, 2002년 1월, 개복동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중한 생명 15명이 간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개복동은 엄청난 속도로 쇠락하기 시작한다. 성매매업소들이 모두 문을 닫았고, 자연스럽게 주변 술집, 가게 등도 문을 닫기 시작했다. 더불어 나운동으로 상권이 옮겨지고 CGV와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형태의 영화관이 오픈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운영되던 지역 극장인 우일씨네마와 국도 극장도 자연스럽게 문을 닫았다. 사람들의 발길로 가득 찼던 거리에 슬픔이 자리 잡았고, 개복동은 낭만과 슬픔이 공존한 채 잠들었다.

지역민으로 살게 해주는 고향, 개복동

하지만 잠들어 있는 개복동을 계속해서 깨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개복동을 지키고 있던 예술가에 이어 2000년대 후반부터 동네 재생을 위해 청년 예술가들이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청년 창업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 또한 지역 재생, 청

년, 예술문화, 여성 인권 등 동네의 이야기가 살아 있고, 동네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리 잡은 개복동에 운명처럼 매료됐다. 때마침 우리의 상상을 펼치기에 적합한 90평의 2층 공간과 옥상을 가진 건물을 발견했다. 20만 원이라는 부담스럽지 않은 월세는 우리를 이곳으로 계약하게 이끌었다.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중고 가구로 공간을 채우고, 매일 쓰고 닦아내며 우리의 공간을 직접 손때 묻히며 만들어갔다. 2019년 여름, 로컬라이즈 군산 창업팀을 비롯해 군산에서 사귀친 친구들과 공간의 직전 세입자, 건물주, 주변 지역주민들을 초대해서 <와이랩(당시 팀명)제1구역 점령식>을 진행했다. 공간을 소개하는 오픈식이었지만 사실 우리의 본격적인 군산 정착을 알리는 행사였다. 많은 응원을 받은 오픈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 개복동 공간은 우리의 고향으로 존재하고 있다. 개복동에 터를 잡은 후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호텔'이 영화동에 세워졌고, 로컬프렌들리의 메인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시작됐다. 사업을 펼칠 무대는 영화동이었지만 우리를 지역민으로 살게 해주는 곳은 여전히 개복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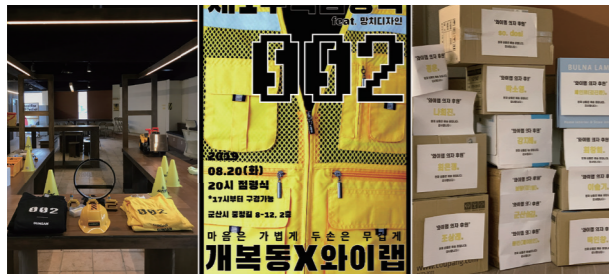
먹고 마시는 회사, 주식회사(酒食會社)

코로나19 사건이 발생하고 관광사업이 중단되면서 로프의 메인 비즈니스인 커뮤니티호텔 운영이 어려워졌다. 전국민이 버티기에 들어갔고, 우리 역시 이 시국을 어떻게 버틸

1) 로컬라이즈 군산(Local:Rise Gunsan)은 군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로컬 창업과 혁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프로젝트다. SK E&S의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연대은행, 언더독스 주식회사와 함께 '청년 혁신가', '창업', '지역 재생'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군산에서 처음 진행되었다.

2)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군산 구도심 영화동에 세워진 '로컬라이즈 타운'은 프로젝트 기간에는 창업교육의 장으로, 교육 이후에도 공유 오피스, 라운지, 미팅룸 등 프로젝트에 참여한 창업팀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제공한다.

여성징병제를 둘러싼 설왕설래



개복동 거점공간 (좌측부터) 직접 손으로 만든 공간 전경, 공간오픈과 지역정착을 알리는 행사 포스터(당시 팀명 와이랩), 여러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공간오픈을 축하하며 의자를 후원했다.




개복동 모과심터 축제 현장 (좌측부터) 지역민이 함께 운영하는 '비둘기책방', 작은 공연이 진행되는 '모과나무작은무대', 오래된 건물 뒷벽을 활용한 대형홍보게시판

지 고민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 고민은 우리를 외지인이 아닌 지역민의 입장에 더욱 가까워지게 했다. 우리가 가진 공간을 지역민을 위한 대피소처럼 운영했다. 놀고 즐길 거리가 더욱 부족해진 군산에서 지역민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지키며 동아리 운영과 즐길 거리를 기획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진행하며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에도 지역민과 외지인이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운영해 숙박업에 시너지로 곁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때 떠오른 게 바로 군산 안팎의 먹거리, 마실 거리 콘텐츠를 다양하게 소개하는 것이었고, 이 생각은 먹고 마시는 행위를 더해줄 로컬샵 기획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로프의 세번째 공간이 바로 '술 읽는 상점'이다. 로프의 로컬샵은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지역민과 외지인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곳이 됐고, 개복동 상인들과의 콜라보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아픔을 커뮤니티로 회복하고 해결하는 공간이 됐다. 이러한 우리의 움직임은 2021년 10월 진행되고 있는 온택트 군산시간여행축제 '개복동 편'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우리 모두, 로프가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사실 창업팀들 사이에서는 로컬프렌들리를 향한 더 재밌

는 응원이 있다.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해?”, “로프(로프는 로컬프렌들리의 준말이다)가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사회적 가치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비영리 활동가들이 함께 잘 살아 가는 지역모델을 ‘진정으로’ 고민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을 ‘정성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다. 로프의 커뮤니티 디자인은 지역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안에서의 연결 또한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만 반짝 단독으로 잘되는 사업모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협업해서 상상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YWCA안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우리만의 가치와 커뮤니티 능력은 로컬라이즈 군산 프로젝트 내 창업팀들을 포함한 군산 청년 창업가, 예술가, 지역민 등 이들을 접착제같이 엮어낸다. 이것은 아무도 따라 할 수 없는 우리만의 역량이다. 지역민과의 결합과 커뮤니티의 가치는 어쩌면 번거로운 일일 수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군산에 사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재밌게 모여 살 수 있도록, 지역민 커뮤니티의 분위기와 매력에 반한 외지인들이 군산을 찾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계속해서 군산에 올 수 있도록, 지역에서의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즐거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 김엘리

성공회대 실천여성학전공 외래교수

여성징병제 주장은 사회적으로 언제부터 설왕설래했을까?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은 1994년 군가산점제 폐해를 제기할 즈음 스멜스멜 나온 말이다. 하지만 그때는 ‘억울하면 여성분들 군대 가시죠와 같은 논조였다면, 이십 여년이 지난 지금은 더 격하고 둔탁해졌다. 거기엔 ‘국가에 기여하지 않는 이기적 여성’이라는 딱지가 달라붙어있다. 격분하는 말은, 2000년대에는 남성만의 병역의무제가 차별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촉구하던니 2017년부터는 여성징병제도를 만들라는 청와대의 청원으로 번졌다. 이 가운데 ‘여자도 군대가라’는 말은 ‘젠더갈등’으로 번역되고,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여성징병제가 제시됐다. 현재 여성징병제를 요구한 국회의 국민동의가 10만 명이 충족되어 병역법 개정 논의는 국회 국방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런데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다. 여성 군대 가라는 말은 남성들의 억울함, 보복, 인정 투쟁 속에서 특 튀어나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여성도 군대에 갈만한 때가 되었다고 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예전만큼 분명히 나누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은 보호 받아야 할 약자라는 생각이 약해지고 있다. 이제 여성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남성들과 격투하고 공룡과 싸우며 적진에 들어가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주체로 재현된다.

여성징병제 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여성징병제 대해 반신반의한다. 시행한다해도 사회복무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여성징병제를 둘러싼 입장들을 크게 세 가지로 살핀다.

보수주의자들의 불가론

여성징병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몸의 취약성을 그 이유로 든다. 그들에 따르면,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군사 활동에 유용한 몸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군대는 전쟁을 위한 것인데, 여성은 체력이 열세이고 임신과 출산을 하므로 군인으로서 부적절한 몸인 것이다. 그래서 여성들은 군사 활동에 효율적이지 않다. 헌법재판소와 국방부가 펼치는 언설의 기본 골격이다.

병역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여성들의 징병 면제 이유로 세 가지를 든다. 여성은 첫째로 전투 수행을 위한 신체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둘째로 월경 같은 생리 특성 때문에 전투 관련 업무 수행에 장애가 있으며, 셋째로 전시에 성적 학대와 같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남성만을 징병하는 것은 최적의 전투력 확보에 있으므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라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한다.

군의 효율성 차원에서 여성이 군인으로 유용한가라는 물음은 꽤 해묵은 논쟁이다. 여성은 약한 체력을 지니고 성격으로도 취약하다는 통념은 전투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군의 결속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왔다. 여성의 몸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은 여성의 군 참여에 관한 여론을 만들기도 했다. 여군들이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포로가 되거나 전사한 소식들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군 참여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보수주의자들의 불가론은 또한 군의 효율성 못지않게 전통적인 성별 분업 이념을 그 근거로 삼는다.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의 문화는 남성의 것과 달라서 여성들은 군대와 맞지 않는 존재로 여겨진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여성은 평화와 사랑의 상징이다. 군은 전쟁을 위한 것인 만큼 문화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여성들에게는 부적절한 일이다. 이로써 전쟁을 하는 남성들이 돌아갈 곳, 전사들을 기다리며 맞이할 평화로운 곳으로 여성의 자리는 보존된다. 보수주의자들의 입장은 다시금 ‘남성 = 군대’, ‘여성 = 출산’이라는 도식을 확증시키는 효과를 낸다. 이 구도에서 여성은 군 효율성을 위해 필요할 때 동원된다.

급진주의자들의 반대론

급진주의자들은 여성 징병제가 왜 어불성설인가를 논하는 일에 주력한다. 급진주의자들의 의견은 하나로 묶지 못할 만큼 스펙트럼은 넓다. 여성의 병역의무를 주장하는 이유가 불순하다는 비판에서부터 여성들이 병역의무를 수행해도 성평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반박까지 다양하다. 그뿐 아니라, 병력자원 충분설, 군대 개혁의 우선설, 나아가 군사화의 확대설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개다.

그중 병역의무는 여성에게 과잉 노동을 안겨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법학자 윤진숙은 가사노동과 양육 책임을 맡은 여성들이 병역의무까지 진다면 이중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녀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야말로 여성들에게 차별이 된다고 내다본 것이다. 특히 급진주의자들은 차별의 한 형태로서 성폭력을 꼽는다. 군대 내 발생하는 성폭력은 남성 중심적인 군 문화를 그대로 드러내는 예시라고 본다.

영문학자 고정갑씨는 여성들의 군 참여 반대론을 급진적으로 밀고 간다. 그녀는 군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 평등한 직업 공간으로 설정하는 사람들의 논조를 비판한다. 군대는 전쟁을 만드는 군산복합체와 연관된 체제 안에 있으므로 이 군사 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군사체제는 단순히 군대를 둘러싼 시스템만이 아니라 군사주의와 자본주의 제국주의 그리고 가부장제가 서로 결합된 글로벌한 체제다. 여성은 이 군사 체제 안에서 남성과의 동등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군대 밖에서 다른 차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자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군비축소운동이나 병역 거부, 전쟁반대와 같은 평화운동을 제안한다.

여성징병제가 군사주의를 확장시킬 것이라는 논지는 서

구의 탈군사화 페미니스트들의 견해와 닮았다. 탈군사화 페미니스트들은 군사 활동의 폭력성에 초점을 맞춘다. 군사안보를 수행하는 군대는 전쟁 준비를 하는 국가 장치로서 직접적 폭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평시에도 구조적 폭력을 사회적으로 생산한다고 본다. 특히 그들은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자연과 생태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을 조명하면서 군사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군사화를 비판한다. 그들은 군이 성차별주의와 이성애주의, 인종주의가 얽혀 만들어진 제도라고 여기므로 여성이 군에 오면 구조화된 차별에 놓일 것으로 본다. 그러니 여성 입대에 반대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인 편이다.

남녀공동병역의무제 찬성론

남녀가 함께 병역의무를 수행하자고 주창하는 찬성론자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여성의 병역의무를 설파한다. 첫째는 여성인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이고, 둘째는 국가안보를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지자는 차원이다. 여성인력 활용론을 펼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몫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여성 인적자원이 우수해졌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었다는 사회적 평가를 그 배경으로 삼는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남성군인을 대체할 인력이 절실하다는 세간의 여론을 거기에 더한다.

또 하나는 국가안보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국가의무의 차원이다. 찬성론자들은 병역의무를 통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국민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김화숙 전 재향군인회여성회 회장은 2005년 국회안보포럼이 주관한 ‘안보, 남성만의 영역인가’라는 포럼에서 여성의 의무병역을 제안했다. 여성들의 군사 활동 능력은 이미 검증되었다며 14-16개월의 군 복무 기간을 제시했다.


찬성론자들은 남녀공동병역의무제의 이점도 말한다. 남성과 여성이 공동병역의무를 수행하면 군 문화가 인권 친화적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본다. 여성의 군 참여가 폭력적인 군 문화를 바꿀 것이라는 예측은 현직 여성 군인들과 군 연구자들의 소견이기도 하다. 인권 친화적인 군 문화는 두

말할 필요 없이 중대한 사안이지만, 여성의 군 진입이 폭력성을 낮춘다는 판단은 젠더 통념을 강화하는 효과를 낸다. 여성은 부드럽고 관계지향적이며 비폭력적이라는 성 고정관념을 비판적인 검토 없이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서구의 성평등주의자들의 논지와 만난다. 성평등주의자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평등주의자에게 평등은 여성이 군에 온전히 진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여성에게 동등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그들은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정하면 성 평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으며, 군 안에서 여성의 전문적인 역할과 권한을 모색한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가 바로 이 입장에 있다. 그들은 여성도 군사 활동을 거뜬히 해낼 체력과 리더십을 갖추었다고 평가한다. 임신과 같은 여성의 생물학적 요소 또한 조절이 가능하므로 군 참여를 방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성평등주의자 중에는 시민공화주의 입장에서 군 참여를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들은 여성도 시민으로서 남성과 동등하게 국가안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평등주의자들 중에는 군의 사회적 폭력성조차 남녀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성의 개입을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여기에는 군의 변화를 기대하는 믿음이 담겨 있다.

그러나 군사안보가 왜 공공선이어야 하는지, 시민권은 왜 병역의무를 통해서 성취되는지에 관한 물음은 없다. 더욱이 ‘여성의 참여 자체가 평등인가’라는 물음에서 나올 수 있는 밀도 있는 논점들은 은폐되었다.

덧붙여, 과연 여성을 ‘징병’한다고 해서 성평등이 성취되는가? 군대 내 성차별은 시민사회의 성차별과 맞닿아 있다. 시민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군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여성징병 논의도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징병해야 한다’, ‘아니다’의 단답은 그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YWCA 지역법인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회원 YWCA 재구조화 자문위원
 「비영리법인 단체 관리운영 업무편람」 대표연구자

법인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인 이유는 사람과 사람의 결합에 있다.” 법인 제도를 체계화시킨 독일의 법학자 기르케(Gierke)가 한 말이다. 사람은 고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 없으며, 법인이라는 제도를 고안하여 사람들의 결합을 촉진함으로써 사회를 발전시켜왔다. 법인이란 법률에서 자연인 이외에 일정한 단체에 대해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인이 부여된 조직체를 말한다. 법인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사단법인과 일정한 목적사업을 위해 출연된 재산에 대해 법인격이 부여된 재단법인이 있다. 법이 법인제도를 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법률관계의 단순화이다.

예컨대, 1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하려고 할 때, 만약 자연인에게만 권리능력이 인정된다면 100명의 회원전원이 임대계약의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또한 건물을 매수할 경우에도 전체회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자연인과 같이 법인의 단독명의로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다.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법인으로 인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권리·의무의 주

체가 명확하므로 원활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법인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을 구별을 위해서이다. 만약 단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단체의 영역과 구성원 개인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체의 공동 목적을 위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도 단체의 구성원은 자신의 재산으로 개인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법인격과 구성원의 법인격은 구별되고 이에 따라 법인의 재산과 구성원 개인의 재산은 엄격히 분리된다. 따라서 법인명의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 회원은 개인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이와 같은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법인이 아닌 단체도 많이 존재하는데, 이를 비법인사단·재단이라고 하여 법은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단체명의로 부동산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송상 원·피고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세법상으로도 법인처럼 취급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인과 달리 채권·채무 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단체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도 그 구성원이나 관리자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법인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법인성립법정주의), 법인화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정관의 작성이다. 민법은 제40조에 사단법인의 정관에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소재지, ④ 자산에 관한 규정,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⑥ 사원(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⑦ 존립시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누락되면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 외에 단체의 특성에 따라 정관에 임의적 기재사항을 담을 수 있다. 예컨대 'YWCA법인정관준칙'에 따라 YWCA 조직구조상 반드시 들어가야 할 조항이나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필수조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정관에 기재된 이상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정관을 작성한다는 것은 총회에서 정관을 인준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총회의 결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정해진다. 주무관청에 따라서는 총회의 정수확보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총회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하는데, 회원YWCA의 경우 여성운동본부가 주된 활동이라면 여성가족부가, 포괄적으로 시민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활동한다면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이 된다. 그런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법인설립허가업무는 지자체의 장에게 위임되어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도지사가 주무관청으로 되는데, 지자체마다 법인설립을 위해 요구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잘 파악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지자체마다 법인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기본재산은 제각각이다. 기본재산으로는 부동산이나 예금 등이 될 수 있는데, 기본재산의 변동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므로 회관 등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매년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예금을 기본재산으로 설정하는 것이 법인운영에 편할 수 있다. 기본재산은 그야말로 법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므로, 기본재산으로 정해진 예금은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없고 특별한 사유 없이는 주무관청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법인이 해산되기 전까지는 입출금이 불가능하다. 그 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분류하여 이를 집행하면 된다.

단체가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으면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인으로 성립한다.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및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등기하여야만 대외적으로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회원YWCA가 법인화를 하게 되면 소속 법인의 이사 전원을 등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내부적으로는 이사이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대외적으로는 이사로써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하지 아니한 이사의 행위는 외부적으로 효력이 없다.

법인설립이 인정되면 법인이 아닌 단체(비법인사단)로 있을 때와는 달리, 관할세무서에 설립신고서를 하고 주무관청에도 설립등기 및 재산이전 보고를 해야 하며 각종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주무관청에 사업계획·사업실적·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각종기부금을 적법하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 등 많은 법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게을리 하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되는 바,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행정업무를 전담할 실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설립절차와 여러 의무를 부담하면서까지 법인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체가 법인화하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 공공성을 담보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똑같이 좋은 일을 한다는 A와 B단체 중에서 A는 사단법인이고 B는 법인 아닌 단체일 경우에 당신은 어디에 기부할 것인가? 

“미얀마의 봄을 찾아주세요”

미얀마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관심 필요해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 활동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2월부터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독재 쿠데타와 시민들의 민주주의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여러 시민단체와 국제 에큐메니칼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미얀마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자 노력해 왔다.

한국YWCA는 3월부터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를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트라우마 치료 등의 프로그램 운영, 특히 최근에는 급격하게 악화된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한 코로나 긴급지원이 이루어졌다.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 지지를 위한 엽서 캠페인

한국YWCA연합회가 연대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행동은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불교행동, 해외 주민운동연대 코코와 함께 76차 UN총회에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를 위한 엽서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UN이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 쿠데타 정권에 대항하는 국민통합정부(NUG)가 꾸려졌으나 UN에서 국가적 소통 채널로 정식으로 인정받지는 못한 이유다. 이에 UN총회에 국민통합정부가 임명한 현 미얀마 UN대사를 계속해서 인정 촉구와 더불어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제재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엽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국YWCA는 8월 말에 각 회원YWCA에 엽서를 배포하고 9월 중순까지 엽서를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해 모은 엽서를 UN총회에 발송했다. 강릉, 거제, 고양, 광양, 광주, 남양주, 논산, 대구, 대전, 마산, 목포, 부산, 부천, 서울, 서천, 성남, 세종, 속초, 수원, 순천, 안동, 안산, 안

양, 여수, 울산, 원주, 의정부, 익산, 인천, 전주, 제주, 제천, 진주, 천안, 청주, 춘천, 충주, 포항 등 38개 회원YWCA와 연합회가 참여하였고, 총 647개의 엽서를 UN에 보냈다.

엽서에 담긴 YWCA의 목소리

각 엽서에는 한 분 한 분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써내려간 이야기가 담겨있었다. 어떤 엽서에는 미얀마어로 번역한 내용이 적혀있기도 하고, 어떤 엽서에는 미얀마 시민들을 위한 응원과 위로의 시가 담겨져 있다. 특히 어린이 회원들이 작성한 엽서가 눈에 띄었는데 빼뽀빼뽀한 글씨로 적혀있는 ‘미얀마의 봄을 찾아주세요’라는 글에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힘이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기 때문일지. 어린이들의 마음에서부터 우리나라는 평화의 외침이 계속되기를, YWCA의 어린이들이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랐다.

엽서가 전달된 UN총회

우리의 엽서는 UN총회로 무사히 전달되었고, 총회도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다행히도 이번 총회에서 우리가 함께 요구했던 국민통합정부의 초 모 톤 UN대사가 미얀마 대사로 인정되어 회의에 참여하였다. 다만 이후 10~11월에 이루어지는 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군부 정권과 국민통합정부 중 어떤 곳을 공식 정부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추이를 지켜보고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시 국제적인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한국YWCA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미얀마에 속히 봄이 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 성명서 |

유엔은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의 대표를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라

오늘(9/14) 제76차 UN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에서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들 중 하나는 UN이 미얀마 정부의 대표로 누구를 인정할 것인가이다. 유엔이 미얀마 군부가 임명한 인사를 미얀마 정부 대표로 인정할 경우, UN 스스로 미얀마 쿠데타 주범인 군부를 공식적인 정부로 승인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고, UN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반면, 75차 회기에서 민주 정부가 임명하였고 이후 불법적인 군부 쿠데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온 초 모 툰(U Kyaw Moe Tun) 대사를 인정할 경우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초 모 툰 대사는 2016년 미얀마의 민주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임명되었고, 2020년 11월 자격심사위원회(Credentials Committee), 12월 UN 총회로부터 승인받은 명실상부한 미얀마 정부 대표이다. 2020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미얀마 정부는 2021년 2월 의회를 구성하고, 3월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갑작스러운 쿠데타를 일으켜 의회 개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선출된 의원들을 강제로 구금했다. 이에 맞서 미얀마의 평범한 시민들은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며 대규모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쳐왔다. 쿠데타 직후 40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군사정권에 대해 파업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미얀마 각 지역의 소수민족들 역시 국경지대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7개월 동안 미얀마 군부는 국제 사회의 우려와 규탄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평화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체포·살상하고, 집과 마을을 불태우며 탄압했다. 현재까지 약 1,100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군부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고, 8천 명의 시민들이 체포됐다. 유엔 미얀마인권특별보고관은 “시민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해 고안된 극악무도한 군부의 진압은 반인륜적 범죄를 포함한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2월 26일 유엔 총회 특별회의에서 초 모 툰 대사는 군부 쿠데타를 분명히 비판했으며, 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민족통합정부(NUG)를 대표해 합법적인 정부의 목소리를 밝혀왔다. 더구나 민족통합정부는 각 부처와 내각을 수립했으며, 코로나19 사태 대처와 인도적 지원 제공 등 시민들을 향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유엔 총회는 찬성 119명반대 1명기권 36명의 압도적 지지로 미얀마 군부 폭력 규탄 결의안을 발표하바 있다. 또, 군부를 향해 “2020년 11월 8일 총선 결과에 의해 자유롭게 표현된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은 미얀마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학살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엔 자격심사위원회의 초 모 툰 대사 승인과 각국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인정이 절실함을 다시 강조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 유엔 자격심사위원회는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초 모 툰 대사 신임장을 승인하라!
- 유엔 자격심사위원회는 군부에 의해 대표로 선임된 자의 자격심사를 기각하라!
- 한국 정부는 초 모 툰 유엔대사가 유엔총회에서 미얀마의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2021년 9월 14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모임



청년들과 함께 하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 전개해

- 2021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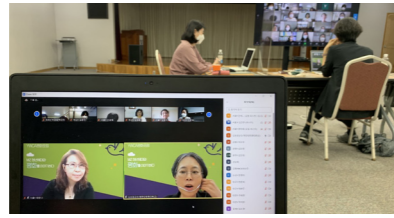
Y를 강조한 평화순례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민족 여성과 함께하는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서울 YWCA 주관으로 진행했다. 2021년 여성평화순례의 주제는 ‘MZ세대와 함께 평화를 이야기하다’였다. 서울YWCA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청년 세대와 함께하는 평화순례를 고민하였고, 청년 세대가 직접 참여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점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을 열었다.

이번 평화순례는 총 2차의 평화포럼과 홀로 걷는 평화순례를 진행하였다. 1차 평화포럼에서는 남문희 기자(시사IN)가 ‘2021년 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한 이해’를 주제로, 2차 평화포럼에서는 김성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가 ‘MZ세대의 출현과 통일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각 포럼에서는 발제 이후 소그룹 토론과 발표가 이어졌는데, MZ세대 당사자인 청년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연합회 및 회원

YWCA 청년 활동가들이 활발하게 참여하였는데, 청년들은 세대 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화의 자리에서 본인들이 꿈꾸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통일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 세대 간 생각의 차이를 발견했다. 삶에서의 다른 경험이 만들어낸 차이이기도 하겠지만, 이번 YWCA 여성평화순례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 포럼의 영상은 공유할 수 없지만 최근 한반도 평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모여 발표한 심포지엄이 있어 참고로 당일 영상 링크의 주소를 올린다. 통일부에서 주관한 행사의 영상인데, 이를 통해 청년활동가들이 어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꿈꾸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유튜브 검색 창에 ‘세션5-3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구상과 역량강화’ 검색, <https://youtu.be/hbua3FQgk5E>)



100년을 향해 따로 또 함께 걷어가는 순례

올해 한국YWCA연합회, 광주YWCA, 서울YWCA는 99년을 맞이했다. 이에 올해 평화순례단은 99명이다. 평화순례단과 일반 참가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홀로 걷는 평화순례를 진행했다. 강릉, 광명, 광주, 군산, 김해, 논산, 대구, 대전, 동해, 목포, 부산, 부천, 서울, 성남, 세종, 수원, 순천, 안산, 여수, 울산, 인천, 전주, 제주, 제천, 진주, 창원, 청주, 충주, 포항, 하남 등 총 30개 회원YWCA와 연합회의 활동가들은 걷기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평화 기도문을 읽고 1만 보를 걷는 순례를 진행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순례 진행 상황과 사진을 공유하였고, 이를 통해 따로 또 함께하는 순례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순례의 여정

2021 YWCA 여성평화순례는 폐회식을 끝으로 여정을 마쳤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쉽게도 최소 인원만 참여하여, 10월 14일 목요일 서울YWCA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폐회식은 서울YWCA 최한나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의 여는 인사, 순례 보고 영상 공유, 2021 YWCA 여성평화 선언문 낭독, 한반도기 전달, 여성평화기도문 낭독, 이유림 서울YWCA 회

장의 감사인사와 폐회선언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폐회식의 이야기 중 몇 가지 인상적인 이야기와 장면들을 스케치 해 본다.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번 순례에서는 세대별 지역별 평화 통일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기도 했지만 다음 속에서 일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YWCA의 여성평화순례가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이끌어내는 순례가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YWCA 이유림 회장은 이번 순례는 MZ청년세대가 중심이 되어 평화와 통일운동 방향을 모색할 수 있어 뜻 깊었으며 여성주의적 관점을 담은 통일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우리의 바람을 담은 평화의 깊은 울림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를 덮고,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바란다며 폐회사를 마쳤다. 2021 YWCA 여성평화선언문은 서울YWCA 평화통일 동아리 피스톡톡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하은 청년이 낭독하였다.

이제 한반도 기는 2022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는 한국YWCA연합회로 전달되었다. 2022년 YWCA 여성평화순례는 한국YWCA연합회에서 주관하며 국내외 청년들 및 디아스포라 여성들과 함께 전개될 예정이다.

| 2021 YWCA 여성평화선언문 |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18)

2021년은 광복 76년, 남한과 북한 각각의 정부가 수립된 지 73년이 경과된 해이자,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30주년' 및 '남북 UN 동시기입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최근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남과 북의 대립과 갈등, 핵 위험 등 불안요소가 남아 있고, 어렵게 이뤄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한반도 평화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평화’는 모든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로마서 12:18)”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개별적·집단적·공적인 모든 영역에서 생명을 회복시키며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의 소명이며,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창립 100년 역사의 문 앞에 서 있는 YWCA는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함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YWCA는 화해와 평화를 위한 순례자의 길을 걸기를 결단하며, 동북아시아 평화의 축이 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힘 있는 발걸음을 내딛으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1. 우리는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며, 국내외 연대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 상생과 공존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 1. 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남북의 민간교류 협력을 지속하며 한반도의 평화 물결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일에 적극 동참한다.
- 1. 우리는 시민들, 특히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상상하고 꿈꾸는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과 교육의 자리를 마련하며,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기틀을 다지는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2021년 10월 14일

2021 YWCA 한민족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 순례자 일동

전국 각지에서 1인 시위, 온라인집회 열어 “지금 당장 기후정의” 외치

한국YWCA연합회와 여러 탈핵 및 기후위기 대응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기후정의의 요구를 분명히 알리기 위해 세계기후행동의날(9.24)을 맞아 9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1인 시위를 포함하는 집중행동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집회·시위가 원활하지 않아, 전국 각처의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건널목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유튜브 방송으로 온라인 집회가 진행되었다.

온라인 집회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지역의 기후정

의 요청을 들어보는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따른 정의로운 온실가스 감축을 요청하며 청소년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모든 지역과 모든 부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YWCA는 수도권 집중행동(고양, 인천, 수원, 연합회) 외에도 남원, 김해, 사천, 속초, 포항, 제주, 부산, 창원, 남양주, 진주, 마산, 양산, 논산, 제천, 전주, 성남, 여수, 익산, 대전, 세종, 인천, 순천, 안산 등 전국 23지역 YWCA에서 집중행동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

“지금 당장 기후정의”

- 지금당장 기후정의! 2030 감축목표 정의롭게 수립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석탄발전 중단하고 신공항계획 철회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탄소성장법 폐기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영터리 시나리오 탄중위를 규탄한다
- 지금당장 기후정의! 식량 보전 에너지 공공성을 강화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대기업의 이윤말고 정의로운 전환 보장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위기 진짜원인 불평등을 해결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재난 외면말고 정부와 기업은 책임져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대응 발목잡는 관료와 기업 규탄한다
- 지금당장 기후정의! 기후위기 최전선의 목소리를 들어라



| 2021 세계기후행동의날 선언문 |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기후정의를 선언한다 9.25 집중 기후행동의 날 선언문

2021년 9월, 올해 또다시 글로벌 기후파업이 펼쳐진다. 파리협정의 문구와 정부들의 공허한 약속으로는 결코 기후위기가 극복될 수 없음을 알리는 행동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거리와 온라인 공간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는 행동이다. 올해 세계의 기후행동은 선진국들의 책임을 묻고 화석연료 사용을 당장 중단하라는 요구에 더하여, 기후위기의 또 하나의 원인이자 결과인 불평등을 해결할 것을 주장한다.

#UprootTheSystem(체제를 전복하라)는 외침은 기후위기가 단지 온실가스 농도의 숫자의 문제가 아님을 알려준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가로막고 해결을 지연시키는 이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기는 더욱 깊어질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나아가 이제까지 기후위기의 피해자로만 치부되었던 MAPA(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지역들)이 해결의 주역으로 나서야 함을 주장한다.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들의 삶이 평온해질 때 기후위기는 비로소 극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글로벌 기후파업에 함께 한다. 그러나 단지 세계 기후정의 운동의 일원으로서 단지 1/의 행동만은 아니다. 바로 지금 당장, 여기 한국의 문제를 대면하는 한국의 기후정의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후정책과 이행은 여전히 더딜뿐더러 기만적이기까지 하다. 지난해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와 대통령의 탄소중립 약속은 속 빈 강정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국회는 ‘녹색성장’의 족쇄를 그대로 둔 채 턱없이 부족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덧붙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강행 처리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술적인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마저 의심스러운 2050년 시나리오 초안을 내놓고는 밀실의 반민주적 공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1월의 글래스고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만들어질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역시 과학적 진실과 국제사회 책임과는 거리가 먼 안일한 목표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계속 되고 무책임한 신공항 바람몰이는 그칠 줄 모른다.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대선 예비후보들의 말에서 기후위기는 진지한 논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주범인 기업들은 부담과 우려를 부풀리며 기후위기 대응의 발목을 잡는 데에만 몰두해 있다. 날로 가속되는 기후재난 속에서도 청와대 국회, 기업들은 여전히 말 그대로 “여전 그대로(Business as Usual)”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뒤집어야 할 체제임을 고발하고 기후정의의 요구를 분명히 알리기 위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25일,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1인 시위를 포함하는 행동에 나선다.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따른 정의로운 온실가스 감축을 요청하며, 이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밝히고 피해칠 것이다. 청소년부터 시니어 세대까지, 모든 지역과 모든 부문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기후위기의 피해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며 모든 이들이 피해자이며 해결의 당사자임을 알릴 것이다. 기후정의는 N명의 주체가 N개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을 말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요구를 말한다. 2030년 감축 목표를 정의롭게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신규 석탄화력발전과 신공항계획을 중단하고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 행동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기만적이고 불충분한 ‘탄소성장법(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제정해야 한다. 영터리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더욱 중요해질 우리의 기반인 식량 보전 에너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의 이윤만을 채워주는 지원 정책 대신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기후위기의 진짜 원인인 불평등 해소를 요구한다. 기후위기 최전선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소리에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우리는 그런 체제를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기후정의를 선언한다.

2021년 9월 25일
기후위기비상행동

2021 한국YWCA 정책협의회 : YWCA 운동, 지역 속으로!

2021 한국YWCA 정책협의회는 10월12일(화)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었다. 52개 회원YWCA에서 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실무자 154명, 연합회 실행위원과 실무자를 포함하여 총 205명이 참석하였으며, 세션1에서는 2021~22 운동정책 평가와 2022~23년 운동 제안, 대선의제 공유, 세션2에서는 도 단위별 과제와 청년운동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였다.

한국YWCA 정책협의회는 운동과 운영 정책을 평가·제안하기 위해 격년 단위로 열리는 협의기구이다. 지난 2년간 연합회와 회원YWCA는 법적 관계 정비와 구조 개편을 통해 운영에 관한 긴밀한 협의를 해왔기에, 2021 한국YWCA 정책협의회는 운동정책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2020~21한국YWCA 운동정책 평가, 2022~23 운동정책 제안

2020~21 한국YWCA 운동정책 평가와 제안을 위해, 연합회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회원YWCA 설문조사를 통해 2년 간 회원YWCA가 실행한 운동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받아 이를 분석하였으며, 연합회 중점운동 책임위원 연석회의 평가를 통해 한국YWCA 운동 전체 평가와 방향을 논의하였다. 2020~21년 한국YWCA 운동정책은 탈핵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의 3대 과제, 청(소)년운동이라는 공동과제를 포함하는 4대 운동정책과제이다. 각 운동별 목표에 따른 세부과제 실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제안은 다음과 같다.

탈핵생명운동에서는 회원YWCA들이 '기후변화대응에너지 소비감축운동'과 '지역에너지 전환교육 확대'의 세부 과제를 가장 활발하게 전개하고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다. 에코스쿨, 인형극, 제로웨이스트샵, 지역사회 및 방송국과 공동 캠페인, 환경정책모니터링, 연탄없는 에너지 전환마을 만들기 등의 모범사례들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과제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 촉구'로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 폐쇄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정책을 이끌어내었다. 한편, 지역별로 시민들의 체감도 차이가 달랐고, 정부의 미온적인 탈핵정책으로 '지자체 탈핵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다. 2022~23년 회원 Y가 지역운동으로 추진할 과제로는 '기후변화대응 운동'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과 캠페인을 운동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성평등운동에서는, '성차별적 미디어모니터링과 성평등 문화 확산 캠페인'을 활발하게 전개했으며, 흡소포 및 유아아동 콘텐츠 등에 대한 성인지 모니터링, 양성평등 인형극, 성인지 예산모니터링, 여성평화제, 젠더폭력예방 활동가교육, 일자리 정책 젠더관점 모니터링 등을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양성평등주간 캠페인 등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했고, 여성일자리 사업과 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일자리 확대'를 해왔다. '지역 자치 여성의 주체적 참여와 대표성 제고'와 '지역사회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지역 내 조직적 대응으로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기독교여성주의 확산' 과제는 회원 중심 활동에 그침으로써 교회와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음도 개선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법 제정 운동의 성과도 있었다. 성평등한 노동문화 개선을 위해 한국YWCA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2020년 양성평등임금의 날 제정과 2021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제정이다. 2022~23년 추진 과제로는, 여성혐오와 디지털 성폭력이 심화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성평등 문화 확산'에 가장 의견이 높았다.

평화통일운동에서는 '평화통일을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평화아카데미, 길위의평화학교, 청(소)년 평화바라기 프로젝트, 세계민주시민교육, 평화통일 시민선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등을 진행해왔다.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으면서 53개 회원YWCA와 연

합회가 '텔레이평화기도운동'을 전개하고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에 동참하였고, '홀로걷는 평화순례'로 진행된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도 적극 참여하였다. 지역에 따라 시민들의 인식 편차 및 조직망 확대의 어려움으로 지역사회 영향력을 확대하기 어려웠으나, 그럼에도 지속 추진과제로 '평화통일 인식 제고 활동'을 선택했으며, 특히 청소년을 비롯한 다양한 대상별 교육 및 북한이탈주민과의 이해 과정 등이 제안되었다.

청(소)년운동에서는 '청소년 회원확보와 주도적 활동역량 강화', '청소년 당사자 이슈와 관련한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였다. Y-틴 활동, 민주시민교육, 사이버 또래 상담가 육성, 청소년기후위기 활동, 유해환경감시단, 청년수다회 동아리, 언택트 안전캠프, 디지털 폭력 아웃 프로젝트, 국제교류프로그램 등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 활동으로 리더십을 개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지역 이슈와 연계하거나 글로벌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차후 지속되어야할 우선과제로 제안되었다.

2022~23년 전국중점운동으로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전개함에 전폭적 동의로 합의하였으며, 이는 창립 99주년 기념식에서 100주년 이후 집중 운동으로 선언한 것을 구체화한 행동이다.

2022년 20대 대선 한국YWCA 정책의제


한국YWCA는 운동 목적과 방향에 맞춰 연합회 TF와 중점운동 책임위원 연석회의, 실행위원회를 통해 대선 의제를 구성하였다. 탈핵기후위기, 평화통일, 성평등, 청년의 영역에 탈핵기후와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였으며, 각 정책 목표는 탈핵 및 탄소중립 사회 구축, 평화문화 및 체제 기반 구축,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제고, 청년의 삶에 경제적 정의 실현 등이다. 이 제안은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정책요구서로 전달되고 유권자 참여 시민운동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도 협의회별 워크숍 : 도 협의회 운동 과제 및 청년회원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YWCA는 변화된 조직을 통해 청년, 여성, 기독교, 회원성을 살린 지역운동체로서의 회원YWCA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 YWCA 도단위별 협의회가 운영되면서 본격적인 협의들이 진행되었다. 강원도는 기후위기대응환경운동, 경기도는 성인지 관점의 기후위기운동, 가사근로자법 관련정책 제안, 충북도는 기후위기 공동 교육, 광역단위 기후위기 예산과 정책 성인지 관점 모니터링, 충남도는 화력발전 공동대응, 경북도는 탈핵기후위기 공동대응, 경남도는 에너지전환도시 선언촉구, 도 단위 실무활동가 교육, 여성친화도시 지정, 세대별 평화활동가 양성, 전북도는 지역에너지전환 교육, 양성평등 축제, 전남도는 성평등지수 높이기, 한빛원전 및 쓰레기문제 공동대응, 제주도는 평화하나, 탄소제로, 폭력제로운동, 광역시협의회는 기후위기 시민대상교육과 캠페인, Y운동 교육 매뉴얼 제공, 제로웨이스트 정책 제안 촉구, 기독교여성주의운동, 세대별 평화리더 양성 활동 등을 과제로 협의하였다. 청년회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욕구 파악, 자체적인 이슈 발굴과 지원, 공간 제공, 온라인 활용, 기독교 여성 청년 연계 등이 필요함을 협의하였다. 워크숍 그룹 진행을 맡은 14명의 사무총장들은 워크숍 방향 합의와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위해 사전 이공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핵기후생명운동을 전국중점운동으로 전개할 것, 둘째,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 운동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체화하고 지속해나갈 것, 셋째, 도 협의회를 통해 공동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하며 거버넌스를 구축해나갈 것, 넷째, 지역 청년회원을 확보하고 운동을 활성화할 것이다. 새로운 조직과 구조를 통해 YWCA의 본연의 목적인 운동을 지역의 관심과 이슈에 맞게 전개하고 시민 참여와 지역 변화로 영향력 있는 시민운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정의로운 2030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선언 |

앞으로 10년을 위한 10월, 우리는 선언한다 정의로운 2030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11월 초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된다. 한국 정부는 이 회의에 맞춰 2030년 감축 목표를 한창 논의 중이고, 전 세계 시민사회는 COP26을 겨냥해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좌우할 향후 10년, 그리고 그 10년을 결정할 10월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급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는 “정의로운 2030년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2021년 10월, 한국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11월초,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 새 감축목표를 들고 참석할 예정이다. 10월 8일, 탄소중립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공개되었다. 국가가 기후위기 비상을 선언하고,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약속하고 1년 여 만에, 중간목표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이 불충분하고 부정의한 목표를 거부한다.

첫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턱없이 낮다. 정부는 2030년 연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제시했다. 그런데 정부는 일종의 눈속임을 하고 있다. 정부가 기준으로 삼은 2018년 배출량은 흡수량을 빼지 않은 '총배출량'인데, 목표 연도인 2030년 배출량은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의 총배출량은 2018년 총배출량에 비해 30% 정도 감축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2030년 목표를 설정하려면, 최소한 UN IPCC의 [1.5°C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10년 대비 45% 감축'이라는 권고에 기반했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2018년 대비 50%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과학의 권고를 비틀고 수치를 혼용해가며 감축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

둘째, 책임의 원칙이 없다. 기후위기 대응은 2050년에 탄소중립에만 도달하면 성공하는 달리기가 아니다.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만큼 당연히 우리가 얼마 이상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방출해선 안 되는지, 곧 '탄소예산'을 고려해야만 한다. 하지만 한국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1위, 누적 배출량 13위, 경제규모 10위 국가로서 책임있는 국가 탄소예산을 산정하고 있지 않다. 한국이 어느 정도 이상의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선 안 되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허구다. 자국의 책임에 대한 성찰 없는 강대국들의 부정의한 계획을 컨닝하는 국가 목표를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셋째, 불확실하고 부정의한 방식이다. 정부의 NDC에는 흡수원, 국외감축,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을 통해, 2030년 기준 7,2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가 흡수·제거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CCUS처럼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기대어 국가 목표를 세우는 것은 국가가 도박을 하는 것에 가깝다. 또한 '흡수원' 역시 기존의 산림을 벌채하고 재조림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다양한 생명 다양성이 공존하는 산림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생태학살을 예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외감축 역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다. 개발도상국의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이 유력한 방안일 테지만 이 또한 현재는 선진국의 감축 노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국외감축은 자칫, 기후위기 측면에서 대부분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온 강대국들이 자신들이 져야 할 부담을 개발도상국에 '아웃소싱'하는 부정의를 야기할 수 있다. 국외감축을 한국의 감축 노력으로 인정하고자 한다면, 한국의 자본이 투자한 해외 석탄발전소의 배출량이나, 개발도상국의 숲한 국내 기업의 시설들도 온실가스 배출 또한 우리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한국의 국외감축 계획은 달콤한 열매만 따먹고 쓰레기는 다 버리고 오겠다는 태도다.

정부가 발표한 감축목표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불평등과 폭력을 부추긴다.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을 국경 밖으로 투기하는 것이며, 비인간 생명들에 대한 착취를 심화시키는 계획이다. 우리는 이 부정의를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선언하며, 정부가 기후정의에 입각한 '앞으로 10년' 목표를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

지금 당장,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11월 초,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다. 전 세계의 시민사회는 기후정의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 세계 풀뿌리 시민들, 노동자, 농민, 원주민, 여성 등이 함께 "불의한 시대는 끝났다"고 외친다. 기후위기에 맞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한다.

"1.5도 상승 저지, 탄소중립이 아닌 진정한 배출제로, 화석연료 채굴과 투자 중지, 시장과 기술 중심의 잘못된 수단 반대,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국제적 정의, 그리고 사회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래로부터의 시민의 참여만이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의 세상을 가능하게 한다.

올바른 2030감축목표 수립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서, 한국의 국제적 책임에 부합하는 2030 감축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제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하면서, 한국의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현재 한국정부의 불충분한 감축목표로는 기후약당의 오명을 지속시킬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정의로운 2030감축목표다.
- 정부는 탄소예산에 기반하여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고, 배제와 착취가 없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 이윤과 성장이 아닌, 모든 시민과 지구 생명들의 권리를 위한 기후정의가 지금당장 실현되어야 한다.

2021년 10월 2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달리고, 싸우고, 이기는 여성들

| 오수경

청어람ARMCC대표

매주 챙겨보지는 못했지만 관심 가지고 지켜봤던 <슈퍼밴드 2>가 얼마 전 끝났다. 2019년에 처음 시작한 <슈퍼밴드>는 가요,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이 밴드를 결성하여 경연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매회 개성 강한 밴드가 펼치는 수준 높은 무대 동영상의 화제가 되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 시즌과 달리 여성 뮤지션도 참가할 수 있게 되어 더 다양한 무대를 즐길 수 있었다.

<슈퍼밴드 2>에서 여성 뮤지션들을 볼 수 있었던 건 당연한 결과가 아니다. 2019년 방영될 당시 제작진은 오디션 참가 자격을 남성으로만 제한했다. 명백히 존재하는 여성 뮤지션을 배제한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제작진이 원칙을 바꾸지는 않았다. 2년 후인 올해 초 진행된 시즌2 오디션도 '남성 뮤지션'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다행히 꾸준한 문제제기 덕분에 제작진은 결국 "여성 뮤지션의 참가를 꾸준히 원했던 시청자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반영했다"며 여성 뮤지션에게도 참가 자격을 부여한 것이다.

여성 운동선수에 관한 높아진 관심

<슈퍼밴드>의 시대착오적 행보와는 달리 최근 대중문화 대체는 여성들이라고 감히 평가하고 싶다. 뜨거웠던 여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도 했던 도쿄 올림픽을 기억하는가. 여자 배구는 참가국 중 최약체 전력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4강까지 올랐고, 대충은 그런 여자 배구 선수들에 환호하며 응원했다. 양궁 국가대표 안산 선수는 양궁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 세 개를 획득하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했더라도 여성 운동선수들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예능도 마찬가지다. 박세리(골프), 광민정(피겨), 김은아(핸드볼), 김은혜(농구), 남현희(펜싱), 정유인(수영), 한유미(배구) 등 그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여성 운동선수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콘셉트의 E채널 예능 <노는 언니>들은 호평을 받으며 시즌2가 방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여성 운동선수들을 '발견'하게 했다. 특히 <노는 언니> 속 여성 운동선수들이 함께 '모닝 갈비'를 뜯고, 목젓이 보이도록 신나게 웃고, 근육을 자랑하고 서로 부러워하는 걸 보고 있으면 묘한 쾌감이 몰려왔다. 매끈한 몸매 대신 튼튼한 허벅지와 날개 근육을 자랑하는 여성들이라니! 그들을 통해 동시에 여성의 몸을 다르게 사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간 여성의 몸은 '보여주는' 의미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보다 다양한 의미로 재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하게 재인식되는 여성의 몸

얼마 전 시즌1을 마친 SBS 예능 <골 때리는 그녀들> 또한 눈여겨볼 프로그램이다. 배우, 모델, 개그우먼으로 활동하는 여성 연예인들과 국가대표 선수의 가족 등이 6개의 팀을 구성해 축구 리그전을 펼치는 이 프로그램은 '축알못'인 나조차도 '골때녀'들의 경기를 챙겨보게 될 정도로 그들이 펼치는 승부의 세계는 진심이었고 열정적이었다. 축구 경기 자체도 재미있었지만, 방송인으로만 알아왔던 이들이 축구를 알아가며 성장하고, 좌절하고, 최선을 다해 승부를 겨루고, 마침내 성취하는 '드라마'를 보는 즐거움이 컸다. "왜 이 재밌는 걸 여태 몰랐을까" '개벤저스' 멤버 신봉선의 말처럼 <골 때리는 그녀들>의 시간은 그들이 축구의 재미를 알게 되

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여성들이 이토록 치열하게 운동하며 즐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감각을 알게 된 시간이기도 했다.

강하고 아름다우며 깨끗한 승부의 세계, 스우파

여성 스포츠 예능만큼 좋아하며 '본방 사수'하는 프로그램이 또 있다. 엠넷 예능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다. <스우파>는 여성 댄스 크루 8팀이 서로 실력을 겨루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그간 무대 뒤편을 담당하던 여성 댄서들이 스포트라이트와 환호를 받으며 저마다의 실력을 뽐내는 모습을 매회 감탄하며 보게 된다.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실력을 겨루지만, 결과에 매몰되지 않는 승부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특별하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속성상 경쟁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반드시 이겨야 하는 베틀에서도 이들은 상대 크루의 퍼포먼스에 환호하며 존중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만들 때도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기보다는 동료들의 의견을 듣고 협력하여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여 멋진 무대를 만들어내고야 만다. 또한 최선을 다하며 무대를 마음껏 누리되, 결과에는 깨끗하게 승복한다. "나만 아니면 돼!"를 외치며 경쟁을 당연하게 여기고, 이기는 게 미덕인 세계에서 <스우파> 크루들이 보여준 것은 강하고 아름다우며 깨끗한 승부의 세계였다. 무엇보다 그간 '백댄서'라 불리던 이들에게 '백'을 빼고 오롯이 '댄서'라는 이름을 부여한 계기가 된 게 의미 있었다. '백'을 빼니 그간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이다.

나와 우리의 이야기

남성들이 중심이 된 운동장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 운동선수들이나 무대 뒤를 담당하는 댄스 크루들의 세계가 대중문화의 메인 서사가 되었다는 점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여성들의 서사가 이제 전면에서 드러날 때가 되었음을 시사한다. 물론 모든 영역이 여성 중심일 수는 없겠으나 <슈퍼밴드>의 사례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여성의 존재를 지우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한 존재를 넘어 하나의 세계를 지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에는 리듬이 있어"

"난 단순히 도톰한 엉덩이만은 아니야. 나는 사고할 수 있는 뇌이고 입맛 다실만큼의 분홍빛 입으로 심오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 (중략) 나는 현명한 이들로부터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문화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지. 내 타고난 골격의 두꺼움은 과식해서 뚱뚱해진 것이 아니라 강한 여성인 거야.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에는 리듬이 있어."

<스우파>에 출연하는 크루 중 '프라우드맨'이 미션 곡으로 선택한 Jill Scott <Womanifesto>의 노래 일부다.

많은 여성들이 여성 운동선수들에 주목하고, <슈퍼밴드>의 여성 참가자들을 응원하고, <골 때리는 그녀들>이나 <스우파>에서 여성들이 승부를 겨루는 걸 응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나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도톰한 엉덩이'와 같이 전신되고 소비되어왔던 몸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자신의 몸을 주체적으로 사유하며 재미와 건강을 위해 신체를 단련하고, 자신만의 호호와 리듬으로 단단한 일상을 살아가길 원한다. 또한 능동적으로 사고하며 서로 배우며 성장할 준비가 된 여성들의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길 원하고 있다.

그렇기에 "한 사람에게 어떤 운동 하나가 삶의 중심 어딘가에 들어온다는 것은 생각보다 커다란 일이었다. 일상의 시간표가 달라졌고 사는 옷과 신발이 달라졌고 몸의 자세가 달라졌고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고 몸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다"는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의 저자 김혼비의 말처럼 거의 모든 것의 '기본 값'이 남성으로 설정된 사회에서 여성이 그림자처럼 누군가를 보조하고 역할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빛나고, 서로를 빛낼 수 있는 주체적 존재로 존재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중요하다. 사회가 설정한 전형적 이미지의 틀을 깨고 달리고, 싸우고, 이기기를 욕망하는 다양한 여성들의 존재는 앞으로 올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빼앗긴 운동장과 무대에 오를 기회가 생겼다. 드넓은 운동장과 무대에서 마음껏 달리고, 싸우고, 이기는 여성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길! 

기독교청년학생운동 '어제와 오늘의 끊임없는 대화'

김수진
한국YWCA연합회 대학·청년 간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청년위원회가 주최하고, 박형규목사기념사업회 길위의학교,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기독교청년아카데미가 주관하는 '기독교청년학생운동, 어제와 오늘의 끊임없는 대화'가 2021년 9월 26일부터 28일 저녁 7시, 온오프라인(서울제일교회, ZOOM)에서 공개특강으로 동시 진행됐다. 필자는 공개특강 셋째날 활동가의 현장이야기로 참여하게 되었고, YWCA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YWCA 대학·청년부서 담당 간사로 있으면서 만났던 필자의 현장에 대한 이야기와 고민을 풀어갔다.

어제와 오늘의 끊임없는 대화

교회와 기독교 기관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한 지점이 되고, 계속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청년위원회는 '어제와 오늘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주제로 공개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공개특강은 기독교청년학생운동의 원로, 선배, 그리고 현직 활동가의 이야기 3개 파트로 나뉘어 진행됐다. <한국 기독교청년학생운동의 초기부터 함께한 원로에게 듣는 기독교청년학생운동>은 김용복, 안재용 원로가 진행했고, <청년학생때부터 지금도 기독교운동을 이어가는 선배에게 듣는 기독교청년학생운동>은 박승렬, 최종덕, 최철호 선배가 80-90년대 기독교청년학생운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의 삶을 이야기했다. 공개특강의 마지막날은 <현장에서 기독교청년학생을 만나는 활동가에게 듣는 기독교청년학생운동>이란 주제로 양다운, 김수진, 하성웅, 김민아, 김표정, 이광호 활동가가 자신이 속한 단체에 대한 소개와 함께 자신의 현장과 운동성에 대한 경험을 나눴다(강연자의 자세한 정보는 공개특강 포스터를 참고).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3일동안 대면/비대면 약 150여 명이 참여했다.

청년을 부르는 교회, 청년을 외치는 단체, 청년은 어디에?
청년이 문제해결의 주체였던 7-80년 학생운동 시절과는

달리 이제 청년은 문제 대상으로 전락했다. 기성세대의 눈과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시각으로 청년을 보았을 때 청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청년이 더는 없는 시대가 되었다.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100대 1을 훌쩍 넘은지 오래며, 청년실업률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노동이 자본을 버는 것이 아닌 자본이 자본을 버는 세상, 학력의 인플레이션과 취업시장의 어려움 가운데 학점싸움과 스펙에 몰두하는 청년들에게 사회를 향해 '정의'와 '평화'를 외치는 행동은 어찌면 사치에 가까운 시간낭비 일지도 모른다. 이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단체인 YWCA에 몰두할 힘이 없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상황이다. '함께'라는 말보다 '경쟁'이라는 말에 더욱 편안함을 느끼는 세상에서 경쟁이 익숙한 청년들이 공동의 가치를 위해 '공동체'와 '연대의 힘'을 꿈꿀 수나 있을까.

여기 사이비예요? vs 세레만 받아오면 되나요?

그래도 청년들은 모였다. YWCA안에는 어린이부터 활동했던 YWCA를 떠나지 못해 남아 있는 청년, 단순히 봉사활동을 위해 찾아온 청년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Y활동에 이끌려 찾아오는 청년도 있다. 2017년 YWCA 청년 담당 간사가 되고 처음 지역으로 출장을 갔다. 한 지역의 YWCA에서 인준식을 진행하는 날이었다. 개회예배를 시



대학 청년 YWCA 단체사진(YWCA 버들캠프장에서)
왼쪽 : 공개 특강 포스터

작으로 인준식은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지역YWCA 회장의 대표기도 시간에 참가하고 있던 한 청년으로부터 나는 깜짝 놀랄만한 말을 들었다. “여기 사이비예요?” 나조차 당연했던 예배가 기독교인이 아닌 청년에게, 하필이면 사전에 아무런 공지를 듣지 못하고 친구따라 봉사활동 동아리 가입을 위해왔던 이 청년에게 얼마나 당황스런 순간이었을까. 그날의 예배는 기성세대 스타일의 예배로 준비돼 당연히 비기독교인을 고려하지 못했고, 기독교인인 청년도 참여하기 어려웠다. 그날 나는 인준식이 끝날때까지 기독교기관으로써 YWCA의 역사와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와의 다름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YWCA 정회원은 '세레 교인 여성'이어야 하지만 청년 회원은 청년 조직과 청년운동 개발이라는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있어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혹은 기독교인이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잠시 교회를 떠나 있더라도 YWCA목적성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청년 YWCA전국협의회 임원이 되려면 '세레 교인 여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청년을 찾기 어려운 시대에 임원의 자리에 도전해주는 청년들은 너무 귀하다. 몇해 전 임원 후보 등록 기간에 한 청년이 나에게 질문을 했다. “세레만 받아오면 되

나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이었지만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하필 교회 일정이 맞지 않아 세례를 못 받은 상황이었다. 후보자 조건에 맞추기 위해 별 뜻없이 질문한 것일 수 있었지만 '세레'가 운전면허 취득과 같은 선상으로 느껴져서 기분이 묘했다.

비(非)기독교인, 비(比)기독교인, 비(沸)기독교인

YWCA 청년 조직인 대학·청년YWCA 안에는 다양한 기독교적 바탕의 청년들이 있다. 크게 '기독교인이 아닌 청년(非기독교인)', '아주 독실한 청년(沸기독교인)', 그리고 '기독교인이지만 교회에 가지 않는 청년(比기독교인)'으로 나눌 수 있다. YWCA 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비기독교인 청년들과 어떠한 활동을 기획할 때 나는 항상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YWCA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수없이 고민했다. YWCA(Y-청년운동, W-성평등운동, C-기독교운동, A-회원운동) 이름 하나하나에 담긴 목적 중 'C - 기독교운동', 즉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 다양한 신앙적 바탕을 가진 청년들과 어떤 꿈을 꿀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자 과제였다. 이것은 기독교청년운동 전체의 향후 과제이기도 할 것이다.

C : christian에서 C : community로

YWCA의 'C-기독교운동'은 '하나님나라 운동'이다. 청년들을 '향해', 그리고 이 청년들과 '함께' 어떤 하나님나라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나라는 '공동체(Community)'다. 그러나 청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한끼 떼우는 사회'다. 이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공동체에 대한 경험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나라 공동체를 '함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밥상공동체', '식탁공동체'로 해석했다. YWCA 청년들과 기독교운동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하나님나라를 맛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아는 성찬식(Communion) 역시 같은 어원에서 유래됐다. 누가복음 7장 34절과 사도행전 2장 46절("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YWCA청년들을 잘 먹이고 잘 놀게 했다. 하지만 잘 먹고 잘 노는 것으로 멈추지 않게 했다. 하나님나라 공동체는 단순히 잘 먹고 잘 노는 밥상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임을 알게 했다(눅10:27).

하나님나라 운동, 하나님나라 공동체

앞서 언급한 말씀 구절의 앞뒤에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한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 잘 먹고 노는 공동체를 넘어 그렇지 못한 이웃을 위해 실천하는 방향으로 활동들을 기획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고민, 소외받는 이웃을 위한 운동, 생태운동, 평화운동 등을 펼치며 잘 먹고 잘 놀지 못하는 이웃들을 하나님나라 공동체로 초대해야 하

는 이유를 나눴다. 기독교 복음을 예배와 설교로 전달하지 않았다. 복음은 복된 소식, 즉, 기쁜 소식이다. 소외받거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필요가 채워지는 소식이 복된 소식일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하나님나라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YWCA 목적문을 함께 해석해보고, YWCA 청년들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다. 교회의 교리보다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과 하나님나라 공동체 실천에 대해 공부했다.

신앙이 운동으로, 교회가 현장으로

기독교인이 아닌 청년들에게는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고, 독실한(기존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음 생활한) 청년들에게는 '근본주의적 해석'의 프레임이 벗겨져야 한다. 'Love Jesus but not the Church'라는 말이 있다. 교회의 여러 모습에 고개를 흔들고 떠나온 청년들에게는 다시 하나님나라 운동을 꿈꾸고 사회와 교회를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앞서 말한 비기독교인 청년들을 위해 이 시대에 요구되고 펼쳐져야 할 하나님나라 운동에 대해 각자의 자리와 현장 안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교육하고 나눠야 한다. 신앙과 헌신을 동일하게 여기며 청년단체의 면목을 세우기 위해 청년을 동원하는 방식의 기독교 청년운동은 청년이탈 속도를 더욱 가속화한다. 회원으로서의 '정체성'과 '목적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둘을 잃어버렸기에 의미를 찾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다.

하나님나라 운동을 펼쳐나가야 할 YWCA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문 안'이 아닌 배척당하고 오갈 곳 없는 이들이 모인 '성문 밖'에서 하나님나라를 전했다. 오늘날 청년들은 성문 밖에 있는 사람이면서 또 다른 성문 밖 사람들과 함께해야 할 존재다. 🙏

회원YWCA 릴레이 순례기도회



연합회 원영희 회장은 연합회 후임 사무총장 구정혜 연합회 국장과 함께 '연합회와 회원YWCA가 하나되어 기도하기'를 목표로 회원YWCA 릴레이 순례기도회를 진행 중이다. 순례기도회는 한국YWCA 백년을 준비하며 회원YWCA 현장에서 회원YWCA 일꾼들, 특히 청년들과 만나 한국YWCA 미래를 위한 95개 논제와 회원Y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100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나라를 이 땅에 이루라 하신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고, 연합회 차기 사무총장을 소개하고 새로운 백년을 맞이하는 YWCA의 사명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도 시작하고자 시작되었다.

지난 8월 30일 평화를 기원하며 파주YWCA에서 시작된 순례기도회는 각 권역별로 릴레이로 다음 회원YWCA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22개 YWCA와 함께 순례기도회를 진행하였다. 한편, 순례기도회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회원YWCA 회장, 사무총장, 청년활동가를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참석 인원을 제한하여 진행하고 있다.

한국YWCA 100주년을 위한 청년참여단 모임

한국YWCA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청년참여단이 구성되었다. 한국YWCA 100주년 공동준비위원장인 서다미청년을 필두로 구성된 청년참여단은, 한국YWCA의 청년성을 위해 활



발하게 활동을 전개했던 19명의 청년회원들로 구성되었다. 청년참여단은 지난 8월31일(화)과 9월 3일(금)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많은 청년들이 한국YWCA의 100주년을 함께 축하할 수 있는 기념활동들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7일(월)에 진행된 회의를 통해 청년참여단은 청년글로벌네트워크를 구축하여 YWCA의 청년은 물론 외부의 청년들까지 한국YWCA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을 기획했다. 앞으로 청년참여단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100주년 기념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다짐했다.

10월 월례아침기도회



10월 월례아침기도회가 10월 12일(화) 오전 9시에 온라인으로 열렸다. 안산YWCA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월례아침기도회에서는 '환대'라는 주제로 이주민, 세월호 유가족, 성폭력 피해자, 여성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다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안산대학교 김성희 목사가 누가복음 7장 35절과 8장 1-3절 말씀으로 '지혜의 딸들, 환대로 구원하다'란 주제로 설교하고, '강남역 여성혐오 범죄 5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에서 여성의 시선과 경험을 반영해 재해석한 여성들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되었다.

세계기후행동의 날 집중 행동



한국YWCA는 세계기후행동의날(FFF, Global Fridays For Future)을 맞이하여 9월 25일(토)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각 지역에서 1인 시위 집중 행동을 진행하였다.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 과제를 정부와 기업 및 시민들에게 알리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탄소중립 정책 반응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각 지역별 변화가 및 서울 충무로역 근처에서 총27개 회원YWCA가 참여하여 '지금 당장, 기후 정의'를 외치며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 전환을 촉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34쪽 참고)

제 20회 한일Y 청(소)년협의회

한일Y 청(소)년협의회는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이 모여 공동의 주제를 정해 각국의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계획하여 동아시아 여성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이다.이번 제 20회 한일Y 청(소)년협의회는 <LGBTQ+와 종교>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지난 9월 4일(토)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1차 모임이 진행되었다. 1차 모임은 참가자 소개와 함께 일본의 '호리에 유리'목사의 기



조 강연이 진행되었다. 호리에 유리목사가 에큐메니컬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평등과 쿼어에 대해 강연하고, 참가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2차 모임은 10월 2일(토)에 진행되었다. 2차 모임에서는 양국이 <LGBTQ+와 종교>를 주제로 국가보고를 진행했다. 국가보고를 통해 파트너십제도의 실현과 같은 일본 사회의 현황을 알 수 있었고, 한국은 무지개 예수와 쿼어 퍼레이드 등의 활동을 알렸다. 참가자들 토의를 통해 남성 중심의 종교네트워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차 모임은 11월 13일(토) 오후 2시에 온라인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이를 통해 탄탄한 동아시아 여성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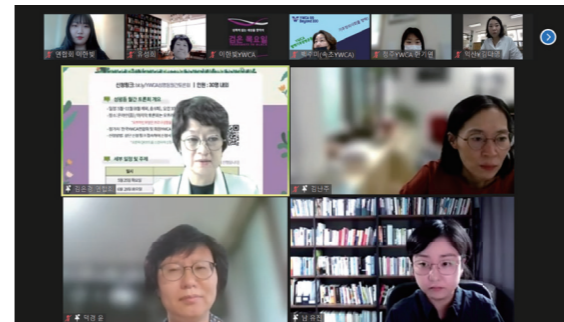
한국YWCA 100주년 주제와 엠블럼 발표



1922년 창립된 한국YWCA가 2022년 10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100년을 기억하고 또 다른 100년을 기대하며 한국YWCA 100주년 주제와 엠블럼을 제작했다. 두 차례에 걸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회원 약 1천여 명의 의견을 담았다. 주제는 '한국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로 선정했고, YWCA 활동의 역동성을 상징하는 파도와 푸른색, 희망찬 미래를 상징

하는 무지개, 여성과 기독교성 등을 엠블럼에 담아 의미 있는 100주년의 시작을 알렸다. (자세한 내용은 6쪽 참고)

9월 YWCA 성평등 월간 토론회: 성평등 대선정책



2021년 하반기 성평등 월간 토론회가 재개되었다. 상반기 성평등 토론회는 회원YWCA의 참여를 통해 YWCA의 성평등 의제를 모으는 시간이었다면, 하반기 성평등 토론회에서는 한국YWCA 성평등 대선 의제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대선 의제가 어떻게 지방선거 의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다룰 예정이다. 하반기 성평등 토론회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 진행되며, 이를 통해 성평등 대선 정책 의제 준비를 마무리한다. 9월 28일 진행된 9월 성평등 월간 토론회에서는 '성평등 대선 정책 의제-1'을 주제로 성평등대선정책TF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이 YWCA 성평등 대선 정책 중 경제와 젠더폭력 영역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였다. 10월에는 계속해서 여성 정책, 교육에 대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에는 지방선거와 연결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회원YWCA 재구조화 맞춤형지원교육



2021년 회원YWCA 재구조화 맞춤형 지원교육이 지난 3월부터 10월 현재까지 법인을 준비하는 15개 YWCA(강릉, 고양, 군산, 김해, 논산, 동해, 마산, 서귀포, 서울, 성남, 양산, 울산, 제주,



천안, 충주), 3개 광역협의회(강원도, 경기도, 경남도)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비법인사단을 준비하는 2개 YWCA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 회원YWCA 재구조화 필요성 및 방향,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 설립 및 운영, 법인(비법인사단) 이사의 책무성,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 설립 단계별 세부 절차의 내용으로 조직혁신 지원국 국부장들이 지원하고 있다. 지난 7월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법인승인기준이 하향 의결되어 4개 YWCA를 제외하고 모두 법인전환으로 재구조화 방향을 결정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법인 재구조화 교육에 18개 YWCA, 비법인사단 재구조화 교육에 4개 YWCA가 맞춤형 지원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2020년부터 진행된 회원YWCA 재구조화 맞춤형 지원교육의 누적 교육 참가자 수는 800명(10.14 현재일 기준)에 육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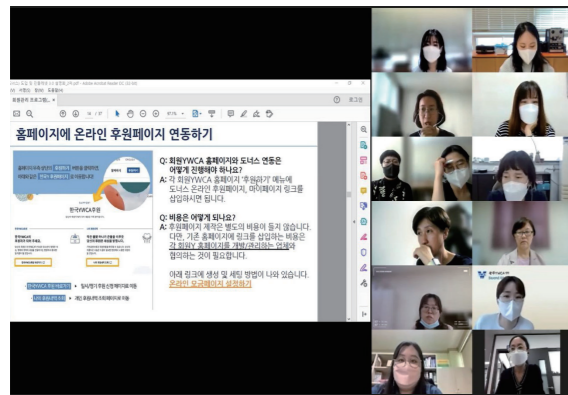
2021 한국YWCA 정책협의회



2021 한국YWCA 정책협의회가 10월 12일(화) 온라인 줌(ZOOM)에서 개최되었다. 2020-21년 한국YWCA 운동을 평가하고 2022-23년 2년간의 운동을 협의하는 시간으로 연합회 원영희 회장을 비롯하여 연합회 실행위원, 52개 회원YWCA 회

장, 사무총장, 이사, 실무활동가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YWCA 운동정책 협의 및 선거 의제 공유>(진행: 이은영 연합회 부회장)에서 2020~2021 운동정책 평가를 기초로 한 2022~23 YWCA 운동 제안을 발표하고, '탈핵기후생명운동'을 2022~23년 전국 중점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탈핵기후, 성평등, 평화통일, 청년 부문의 20대 대선 정책 의제를 공유했다.
이어 <2022~23 YWCA 지역운동 강화 전략 협의>(진행: 조은영 연합회 부회장)에서 광역시·도단위별로 회원Y 지역운동 및 도 단위 운동과제를 협의하고 청년운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에서 탈핵, 성평등, 평화통일, 청(소)년 부문의 운동을 지속하여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특별히 전국 회원YWCA가 모인 이날 '한국YWCA 100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라는 YWCA 100주년 주제 문구와 엠블럼을 발표했다.
앞으로 2년간 YWCA 운동 정책을 협의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100주년 이후 지속가능한 YWCA 운동과 사회를 위해 YWCA가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자세한 내용은 36쪽 참조)

후원자 관리를 위한 도너스 순차적 도입



연합회는 2022년 2월 전국 회원YWCA의 회원관리프로그램인 민들레넷의 사용을 중지하게 됨에 따라 후원관리에 강점이 있는 상용 회원관리프로그램(도너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8월 31일(화)과 9월 16일(목)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도너스 도입 설명회에서는 회원YWCA에서 도너스를 도입하는 데 준비해야 하는 내용,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16개의 회원관리 담당 실무자와 책임자가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도너스 도입 절차에 대한 설명 뿐 아니라 민들레넷 2.0을 대신해 회원YWCA와 연합회의 소통을 담당할 새로운 인트라넷 사이트에 대한 소개도 진행되었다.
도너스(Donus) 도입을 계기로 회원 YWCA는 CMS 회원 관리

를 직접 관리하게 되었으며, 회원들은 회원 YWCA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납부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너스를 활용해서 각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 운동의 소식을 회원들에게 이메일, 카톡으로 공유하고 온라인 모금 진행도 손쉽게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올해 초 상용 회계프로그램(이카운트) 도입, 상용 회원관리 프로그램(도너스) 도입에 이어 신규 인트라넷 사이트 개발이 완료되는 2022년 2월부터는 YWCA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크게 개선 될 것이며, 이를 통해 52개 회원 YWCA는 회원들과의 온라인 소통이 강화될 것이다. 2022년 1월~2월 사이에 도너스를 도입하는 회원 YWCA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는 오는 10월 26일(화), 27일(수) 이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YWCA 가치를 담은 새로운 금융경제교육 개발



연합회가 운영하는 금융경제교육 프로그램에서는 YWCA가 전개하고 있는 환경운동과 경제를 연결하여 YWCA의 가치를 담은 '기후와 경제' 학습지도안을 개발했다. 학습지도안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인간, 숲, 바다 3개 차시로 구성된다. 11월에 씩크머니와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YWCA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과 학습지도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씩크머니 펍핀 프로그램 4차시 핀테크 금융교육

연합회는 YWCA 금융·경제교육 강의의 질적 향상 및 교육 내용 다양 화를 위해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따른 씩크머니 펍핀 프로그램 4차시 핀테크 금융교육을 개발하였다. 펍핀 4차시 금융교육은 온라인 금융거래(핀테크)의 종류와 활용 방법을 익혀 미래 금융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금융관을 확립하고, 스마트 금융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 위험의 종류와 사례를 전달하여 경각심을 심어주며,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담은 내용으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내용은 11월에 씩크머니와 수도권지역 경제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회원YWCA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이다.

2021 YWCA 전국사무총장협의회



2021년도 YWCA전국사무총장협의회가 10월 22일(금),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사무총장협의회에는 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과 전국 52개 회원YWCA의 사무총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한국YWCA연합회 구조 개편과 회원 YWCA 재구조화에 따른 정책, 2022~2023년도 YWCA운동정책에 따른 실행 과제를 협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무총장협의회 당일 오전에는 유성희 사무총장의 'YWCA 재구조화와 향후 과제'의 주제 발제로 시작하여, 전국 사무총장으로서 연합회 법인이사(2인) 선출 기준과 YWCA 협의구조(광역단위협의회)에 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2022~2023년

YWCA운동정책과 2022년도 대선을 위한 YWCA대선정책, 사무총장협의회 운영회칙 개정과 관련하여 협의하였고, 가사법 제정 이후 YWCA의 대응 현황을 공유하였다. 끝으로, 올해 퇴임하는 사무총장들의 인사를 나누고 사무총장협의회가 마무리 되었다. YWCA의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실무협의를 통해서 그 중심을 지키고 있는 사무총장들의 역할이 앞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2030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 시민선언

나는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를 위한 선언에 함께합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하나) 시민선언대회 (둘) 온라인 서명 참여하기

일시: 2021. 10. 22. 금. 일시: 2021. 10. 14. 목. ~ 10. 21. 목.

장소: 추후 공지 참여방법: 구글폼을 이용하여 서명 남기기

한국YWCA와 회원YWCA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더불어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정의로운 2030 감축목표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시민선언'의 서명활동을 전개하고, 10월 22일(금) 오후2시 서울정부청사 및 유튜브를 통해 시민대회를 진행하였다. 11월초 유엔기후변화협약총회(COP26)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기후 정의의 관점에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것을 촉구하였다. (기후정의실현 시민선언문은 38쪽 참조)

한국YWCA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후원현황

이름	후원 금액	후원처	이름	후원 금액	후원처
김영희	300만원	세상을 살리는 100개의 프로젝트 후원	황혜숙	1,000만원	기념사업 후원
김순영	100만원		홍인숙,故 서희전	2,000만원	YWCA 채플조성 후원
박용옥	100만원		김미	1억원	청년참여단 활동, 100년 화보집 제작 각 5천만원
이주영	200만원				
최현자	100만원				
유도희	100만원				
합계			1억 3천 9백만원		

코로나극복을 위한 인도YWCA지원 모금현황

(2021. 6. 1 ~ 2021. 9. 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계광숙, 박동화, 박주리, 박지영, 구분화, 김경태, 김광식, 김명재, 김미애, 김민주, 김상호, 김성이, 김수진, 김영진, 김윤지, 김정현, 김종원, 김하영, 김현진, 김호섭, 박민지, 박보람, 박성연, 박은애, 박은실, 배영광, 배유미, 서다미, 서형원, 송소연, 양유정, 엄주연, 오대근, 오영숙, 유성희, 윤승희, 이가연, 이성령, 이수진, 이슬기, 이예린, 이예림, 이은화, 이은희, 이인규, 이정우, 이주안, 이지영, 이지윤, 이지현, 이한빛, 이현재, 전세현, 전장하, 전호진, 정다빈, 정서연, 정진아, 주윤진, 차민규, 천유란, 최선화, 하지민, 함희경, 홍수진, 홍진영, 홍하늘, 황채영, Fujishiro Sachiko(일본Y)	
회원YWCA	대전YWCA 대학청년Y, 전주YWCA	
누계		1,279,936

YWCA 1922 장학금 모금현황

(2021. 8. 1~2021. 9. 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개인	김병찬, 무명	210,000
회원YWCA	동해YWCA, 안산YWCA	750,000
합계		960,000
누계		9,650,000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현황

(2021. 8. 21~ 2021. 9. 30)

구분	기부자 명단	금액
CMS*	강승아, 강현중, 고세영(청주Y), 곽지영, 구정혜, 국은택, 권경미, 김가현, 김경희, 김근혜, 김기동, 김명희, 김미경, 김병호, 김상은, 김수연, 김수진, 김애린, 김영자, 김영현, 김은경, 김은영, 김정민, 김주영, 김주현, 김태연, 김혜경, 나작더르즈 돌람수렌, 남희숙, 명진숙, 문미란, 문상순, 문윤희, 문인수, 민선영, 박미선, 박보람, 박성민, 박용순, 박용옥, 박은실, 박지영, 박진희, 박효정, 배인기, 배정미, 배창빈, 배한솔, 배한울, 백혜진, 송록희, 신명자, 신인숙, 심은옥, 안은화, 안정희, 양영심, 엄세현, 엄효정, 오시창, 오영란, 원영희, 유도희, 유빈, 유성희, 유수, 윤명선, 윤수정, 이남희, 이명혜, 이민정, 이영미, 이영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종임, 이지윤, 이찬형, 이찬진, 이혜련, 이희숙, 이희정, 임진영, 임향옥, 장세영, 전배자, 전정미, 정경란, 정동신, 정서연, 정지유, 조성애,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차경애, 천유란, 최수신나, 최지영, 최형선, 하은경, 한영수, 한해경, 홍기자, 홍현정	2,485,000
회원YWCA	안동YWCA, 양산YWCA, 창원YWCA	55,000
교회	한양대여성교회, 황간임마누엘교회	160,000
개인	김대식, 조승환	30,000
합계		2,730,000
누계		16,672,030

*CMS는 8월, 9월분임

경인·강원권역

강릉YWCA

이수아 간사

신나는 불편운동



강릉YWCA는 9월 14일(화) 오후 3시 강릉 중앙시장에서 강릉YWCA회원 23명과 함께 '신나는 불편운동' "우리모두 용기내" 챌린지를 진행하였다. 추석을 맞이하여 "환경을 지키려는 용기(勇氣), 씩씩하게 건넌 용기(容器)"를 실천하였다. 장바구니와 담아용기를 준비하여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코로나로 힘든 시장 상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랑을 전했다. 캠페인을 통해 더 편리한 용기를 위해 보냉백을 기념품으로 준비하였고, 강릉 시민이 용기내운동에 참여하여 쓰레기를 줄이며 다함께 지구를 지킬 수 있기를 희망한다.

동해YWCA

정미숙 팀장

동해시YWCA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동해YW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9월 16일(목) 오후 7시 송정동 동해역 주변의 업소를 방문하여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고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어 동해시의 구석진 곳까지 살피어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도 활동과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사)서울YWCA

성지희 팀장

기업과 함께하는 그린 소비 실천 캠페인



서울Y는 9월 2일(목)부터 10일(금)까지 '기업과 함께하는 온오프 그린 소비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그린 배송, 지구를 부탁해'라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8개 기업(롯데홈쇼핑,마켓컬리,홈플러스,현대홈쇼핑,CJ ENM 커머스부문,GS홈쇼핑,NS홈쇼핑,11번가)이 동참했다. 서울Y 회관에서 열린 캠페인 추진 선언식을 시작으로, 서울Y SNS 채널을 통해 참여 기업의 배송 포장재 및 시스템 개선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다양한 실천을 약속했다.

원주YWCA

김민영 간사

EM흡공단지 캠페인



원주YWCA에서는 9월 11일(토),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으로 원주천 정화활동을 위한 EM흡공단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강원경제진흥원 앞 원주천에서 실무활동가와 원주시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EM흡공 5,000개를 던지고 주변 산책로 정화활동을 진행하였다. 원주YWCA는 10월 중 환경교육 프로그램 탄소제로 교육 3,4기를 진행하며 EM흡공단지 활동을 2회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YWCA

서순아 팀장

백소영과 함께하는 기독교여성 아카데미



인천YWCA는 9월 2일부터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기독교 여성 지도력 향상과 인천YWCA 여성운동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기독교 여성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강남대 기독교학과 백소영 교수와 함께 '기독교와 페미니즘의 맥락들'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아카데미는 총 3회에 걸쳐, 페미니즘의 개념과 기독교 안에서의 페미니즘의 패러다임을 알아보고 인천YWCA만의 기독교 여성운동을 고민해 보는 워크숍으로 진행되었다.

경기권역

고양YWCA

남궁해경 국장

우리는 '그린메이커스'



고양YWCA 키다리학교 '그린메이커스'가 9월 4일(토), 9월18일(토) 일산동구청 방면으로 플로깅을 나갔다. 플로깅을 하며 청소년들은 커피음료, 과자봉지, 캔맥주 등 다양한 식음료 쓰레기를 주웠다. 이중 가장 많이 수거한 쓰레기는 바로 '담배꽂초'였다. 플로깅을 진행한 1시간 동안 청소년들이 주운 담배꽂초의 수는 무려 300개비가 넘었다. 활동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일부 어른들의 몰상식한 행동에 자성을 촉구하며 주운 담배꽂초로 경각심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었다. 또한 플로깅을 진행하며

수거한 페트와 캔은 깨끗이 헹구고 라벨을 분리하여 자원순환 로봇인 '네프론'에 넣어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광명YWCA

박문경 총장

8월 22일 에너지의날 시민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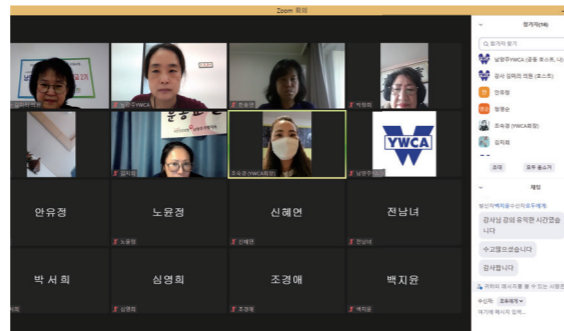


광명YWCA는 8월 19일(목) 하안사거리를 중심으로 에너지의날 기후위기대응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수칙 등을 적은 피켓을 들고 인구가동량이 많은 하안사거리에서 충분한 거리두기를 하였으며 22일 에너지의날에는 탄소중립 토크콘서트에 박승원 광명시장, 개그맨 노정렬,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광명YWCA 정하은 청년이 참여해 2050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전략과 지자체 역할, 청년세대가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란, 기후시민이 되기 위한 실천 약속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남양주YWCA

이종은 팀장

생활정치학교 2기



남양주YWCA는 8월25일(수)부터 9월29일(수)까지 남양주시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지역 내 여성 시민 활동가 양성 및 교육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시키고 자 생활정치학교 2기 수업을 비대면으로 10회 진행하였다. 성평등과 여성주의 인식, 리더십교육, 성인지 예산과 여성복지, 성별영향평가, 언택트 시대 정치 좀 아는 여성, 지방자치와 여성

정치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10회차 수업을 하였으며 성인지와 생활 정치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29명이 참여 하였다. 수업 종료 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사회제도의 불평등과 불균형을 찾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로 토론하고 고민하면서 지역 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 실천하는 모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천YWCA

유예은 간사

손뜨개 전시 및 판매 행사



부천YWCA는 10월 19일(화)부터 22일(금)까지 손뜨개 전시 및 판매 행사를 부천YWCA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저소득 어르신, 장애가족, 위기청소년들과 함께 창업공동체를 목표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뜨개수업을 진행하였다. 뜨개창업공동체는 부천YWCA '월미노인참여나눔터'와 '쌈지공동체', 여성동아리 '아티스트 웨이', '청개구리 심야식당'이 협력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일주일간 전시 및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노인참여나눔터와 쌈지공동체 운영기금 및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성남YWCA

김자혜 주임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기후위기 캠페인



성남YWCA는 올해 초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회원 동아리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시작하였다. 상반기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9, 10월에는 실천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명절 전후 가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실천하고 인증샷을 찍어 사례를 서로 공유하였고, 이후 대형마트앞에서 인식개선 캠페인을 벌였다.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사)수원YWCA

강은진 간사

2021 내가GREEN지구 - 환경과 인간의 공존방법 찾기



수원YWCA는 9월 27일(월) 오전 11시,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기후 위기 대응 탄소 중립을 위해 제로웨이스트 플랫폼 개소식을 가졌다. 지금의 기후위기 대응 문제 해결 방법은 개인의 행동을 넘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연이어 정치, 교육, 기업 등 사회 전반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수원YWCA는 제로웨이스트 플랫폼을 통해 시민환경교육, 에너지, 자원순환, 안전한 먹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한 실천으로 지역 기반의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또한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역량있는 시민을 양성하고 진정한 환경 윤리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실천하려 한다.

(사)안산YWCA

홍지인 팀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개원



안산YWCA는 9월 6일(월), <안산YWCA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개원했다. 현재 9월 15일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1기'를 개강했으며, 보건복지부 표준과정을 준수하여 이론·실기·실습교육 총 240시간으로 진행된다. 본회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돌봄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의정부YWCA

김홍례 부장

Hi~미리 캠프에 놀러와!



의정부YWCA는 8월 21일(토) 10시부터 17시까지 최근 가속화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리 캠프를 진행하였다.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청소년 스스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미디어를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힘을 키우고자 진행되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캠프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 정의와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튜브, 인터넷뉴스, 웹툰, 광고 등의 주제로 4개의 모듈방을 개설하고, 혐오와 차별적 내용 모니터링, 허위조작정보, 팩트 체크 등 청소년의 다양한 생각 나눔과 문제점 바꿔보기를 통해 미디어의 순기능, 역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하남YWCA

김상미 간사

기후위기비상행동 집중행동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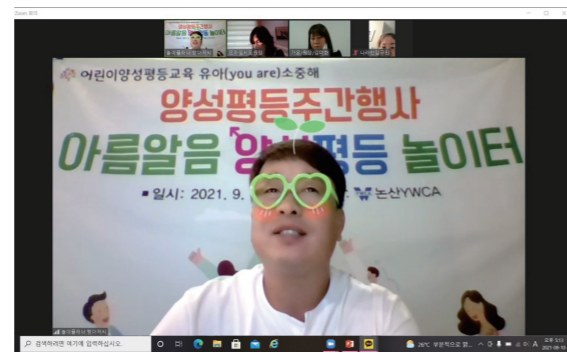
하남YWCA에서는 9월 25일(토) 기후위기비상행동 “집중행동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남시청역 앞에서 회원들과 1인 시위에 참가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고 고온 현상과 많은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 지금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중행동을 실시함으로써 정부와 국회, 기업들이 기후위기에 책임 회피하지 않고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충청권역

논산YWCA

조은숙 주임

가족참여 양성평등주간행사 '아름알음 양성평등 놀이터'



논산YWCA는 9월 10일(금)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온라인으로 어린이집 아동과 부모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알음 양성평등 놀이터'를 가족과 함께 즐거운 배움터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데 의미를 갖는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가졌다. 핑크데이 블루데이, 엄마를 응원해요 등 고정관념 깨기(종이컵 깨트리기), 아빠는 요리사를 통한 성평등 가치를 배우고 깨닫는 기회를 제공할수 있었다.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양성평등 4행시 인증샷을 통해 가정내 구성원 양육자 모두에게 양성평등 실천결의 4행시는 '아이가 차별이 아니도록' 아동들에게 진정한 성평등 가치를 배우고 깨닫는 행사를 가졌다.

(사)대전YWCA

안소진 팀장

제 26회 대전여성포럼

대전YWCA는 2021년 9월 2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대전YWCA 4층 강당에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역할 모색>을 주제로 제26회 대전여성포럼을 진행하였



다. 대전YWCA 정혜원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전지혜 간사의 '성범죄 실태와 처벌에 관한 대전시민 인식조사' 조사발표, 충남대 광대훈 교수의 '성범죄 실태와 처벌에 관한 대전시민 인식조사 결과로 본 대전지역 성범죄 현위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각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포럼을 통해 인식개선부터 지역사회의 역할까지 전방위에 걸쳐 성범죄 근절을 다루는 시간이 되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포럼 진행자, 스태프만 참석하였으며,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 라이브 대전YWCA 채널에서 생중계되어 실시간 소통을 통해 130여명이 참여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세종YWCA

양유정 간사

세종와~이마켓!



세종YWCA는 8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3일 간 세종YWCA 2층 교육장에서 세종와~이마켓을 진행하였다. 반곡동 신축회관 이전을 준비하며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로 진행되었으며, 판매 품목은 여성의류, 신발, 도자기, 가족지갑, 제로웨이스트, EM, 마크라메, 페브릭포스터 등 다양한 물건을 준비하였다. 세종와~이 마켓을 시작으로 그동안 계획하였던 제로웨이스트샵을 설치함으로 Y회관 내에 상설로 회원과 시민들에게 녹색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계기와 제로웨이스트 실천 가능한 환경과 생활 소비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제천YWCA

김미경 팀장

양성평등주간 시민강연회 및 토론회



제천YWCA는 9월 9일(목)13시 30분부터 '2021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해 충청북도 후원으로 '더 좋은 세상, 성평등을 향해'라는 슬로건 아래 '성평등하다는 착각? 착각!!'(부제:갱년기, 다시 태어나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한국전력공사 충북강원건설지사 대강당에서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성평등 시민강연회 및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운숙 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부소장님의 열띤 강연 후 지역 활동가 5명의 패널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성차별 경험과 성 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요소에 대해 토론을 이어나가며 일상생활 속 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강연회 및 토론회를 통해 양성평등을 위해 사회 제도나 정책 개선도 중요하지만 양성평등 의식 변화가 우선이라 공감하고, 여성과 남성이 다름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평등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천안YWCA

곽효정 팀장

추석맞이 비대면 바자회



천안YWCA는 7월 26일(화) 자원활동가와 실무활동가들이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이 살기) 실천을 위해 지역사회 내 소상공인과 함께 하고자 신부동 먹자골목 일대를 순회하며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약속서'를 통해 협력한 사업장은 달리는 커피 외 13곳으로 제로웨이스트(쓰레기 없이 살기) 실천에 참여하기로 약속하고 천안YWCA는 해당 사업장을 온/오프라인에서 홍보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천안YWCA 청년희망세상(다목적가페)에서는 일회용품(컵, 빨대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 가능한 제품

으로 대체하고 소독한 『텀블러 대여운동』으로 쓰레기 없이 살기를 실천 중이다.

(사)청주YWCA

한기연 간사

움직이는 에너지 학교



청주YWCA는 8월 24일(화)부터 '움직이는 에너지 학교'를 운영하였다. 청주시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총 36개 622명) 순회하며 교육을 진행하였다. 먹거리를 통해 에너지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등을 교육을 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수 있는 장바구니로 로컬푸드 시장보기 등의 체험을 통해 탄소를 줄이는 실천을 해보았다. 이 교육 과정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참여하였고 많은 호응을 얻었다.

충주YWCA

이예림 팀장

제로웨이스트X채우장 캠페인



충주YWCA는 9월 25일(토)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호암지산책로에서 제로웨이스트 및 세제소분에 대해 홍보하고 알맹이만 사갈수 있는 '제로웨이스트X채우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라스틱 용품이 아닌 생분해가 가능하거나 천연소재의 제품들로 구성된 친환경 제품들과 통을 가지고 오면 원하는 만큼 구매할수 있는 세제를 소분하여 판매하였고, 로컬푸드와 연계하여 지역의 농가의 농작물을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만 구입할수 있도록 캠페인을 진행했다. 본 캠페인을 통해 지역 시민들에

게 쓰레기 및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알리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선택 해야하는 가치소비에 대해서 알릴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충주 시민들이 환경과 생활, 소비패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상권역

거제YWCA

박숙혜 간사

목공미니어처&팝업북 만들기



거제YWCA는 7월15일과 16일, 경상남도양성평등기금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그림책 양성평등 교육 활동가' 참여자들과 강의 시연 및 수료식을 개최하였다. 교육은 5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6차에 걸쳐 온라인 영상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실시간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 7명 모두 수료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양성평등 그림책 제작 및 교육전문기관인 '딱따구리'(대표 유지은)와 함께 '당신의 책장은 평등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영유아 성인지 감수성 교육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며 그림책을 통해 영유아와 함께 성차별 요소 및 성 고정관념을 찾아내 놀이와 게임 등의 방법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향후 수료생들은 관내 영유아 교육시설과 연계해 그림책 양성평등 모니터링과 성인지 교육활동가로 활동하게 되며, 지역아동들이 올바른 성평등 의식 고취로 성별에 따라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잠재의식을 발현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도록 도울 것이다.

김해YWCA

배정숙 부장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

김해YWCA는 9월 27일(월)부터 10월 30일(토)까지 지역의 취약계층 소비자(어르신)와 실버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



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실시한다. 9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김해동부노인복지센터와 협력하여 취약계층 소비자들 60여명에게 '식품, 의약품 안전사용에 관해 이것만은 꼭!!'이라는 주제로 잔여 약품 처리와 의로기기 사용, 텃따방 등의 13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취약계층의 문의가 가장 많은 상담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이후 10월 중 실버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 교실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대구YWCA

김혜원 차장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구YWCA 큰장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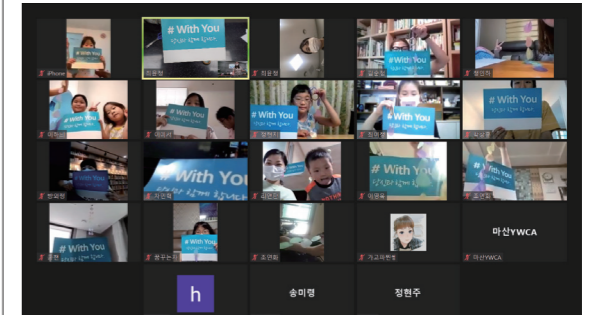


대구YWCA에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추석맞이 큰장날 행사를 이웃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과 EM환경사랑 제품 등의 판매로 생산자와 환경까지 고려하는 착한 소비를 실천하였다. 올해는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면의 상황을 피하고자 사전 주문 이후 행사 당일 드라이브 스루 수령을 진행하였으며 현장 방문자 열체크 및 명부 작성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등 안전한 행사로 마무리하였다. 추석 명절 앞서 매년 진행되는 '큰장날'은 가족들을 위한 건강하고 풍성한 밥상 준비를 기다리는 회원들과 지역주민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 중의 하나로 대구YWCA를 널리 알릴수 있는 귀한 소통의 장이다.

마산YWCA

김민지 간사

양성평등 주간행사



마산YWCA는 2021년 양성평등 주간행사로 9월 1일(수)부터 9월 7일(화)까지 진행한 SNS이벤트와 9월 3일(금), 4일(토) 오후 5시 마산YWCA 강당에서 비대면 버스킹 공연과 9월 4일(토) 오후 1시 다이룸플러스에서 비대면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프로그램이 아닌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서 아쉬웠고, 마산YWCA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여 평등한 세상을 함께 만드는 양성이 행복한 도시 젠더시티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부산YWCA

최수정 간사

세계기후행동의날 기후위기집중행동



부산YWCA는 9월 24일(금) 세계기후행동의날(FFF, Global Fridays For Future)을 맞이하여 기후 위기의 상황인식과 탄소배출제로를 통한 에너지전환 체제 구축과 기후 정의 실현 과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기업에게 강력히 전달하고자 전국적으로 기후위기비상집중행동을 진행하였다. 기후위기집중행동의 슬로건은 '지금 당장, 기후정의'다. 부산에서는 기후위 기부산비상행동에 속한 각 단체들이 지역의 거점별로 2인 1조가 되어 집중행동을 펼쳤다. 부산YWCA는 부산역에서 3개 팀

으로 나누어 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횡단보도 앞에서 기후 위기 비대면 화상시위를 하였다. 지역거점별 상황과 분야 및 단체별 활동, 생활실천활동을 공유하였다.

양산YWCA 김유경 간사
여성들의 이야기터



양산YWCA는 9월 7일(화) 양산YWCA 회관에서 제14회 여성들의 이야기터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정부 방침에 따라 발표자와 심사위원 그리고 진행자만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여성들의 이야기는 지역 여성들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겪은 경험담과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여성들의 정책적인 바람을 발언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이다.

(사)울산YWCA 권한별 간사
사단법인 울산YWCA 창립총회



8월 9일(월), 울산YWCA 2층 강당에서 사단법인 울산YWCA의 창립총회가 진행되었다. 1982년 창립 이래 39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울산YWCA의 새로

운 시작을 알리는 시간으로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운동조직으로 재도약할 Y를 향해 많은 회원들의 축가가 이어졌다. 회원이 중심이 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여성, 청소년, 취약계층 등 권익 증진을 위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사)울산YWCA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진주YWCA 김태진 팀장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진주YWCA에서는 8월 20일(금), 9월 9일(목)에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환경의 변화 때문에 온라인 거래와 홈쇼핑 등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전화권유판매,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로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도민들의 접근 편의를 위해 동부권(창원YMCA)과 서부권(진주YWCA) 2개 권역에 설치되어 매달 1회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조정의 전문성을 위해 법률전문가, 소비자대표, 사업자대표, 교수, 소비자분쟁 조정전문가 등 5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하여 25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매월 진행되는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중재를 받아 도내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 만족도가 향상 되기를 바랍니다.

진해YWCA 권영주 간사
기후위기비상행동캠페인

진해YWCA 청소년동아리 Y-틴은 지난 9월 5일(토) 기후위기 국제비상행동일을 맞이하여 환경기자단 활동을 마친 후 회관 입구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영상을 통해 만나 본 그레타 툰베리처럼 시위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각자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석탄 석유 가스 등의 석유 연료를 폐기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답이라고 들은 걸 같



이 나누기!! 햄버거 속 소고기 패티 110g에는 32가지 화학 물질이 들어있으며 미국에서는 햄버거 속을 콩고기로 대체했음을 알려드리기!! 올해 활동 주제인-내가 그린(green) 지구에 걸맞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통영YWCA 변은실 팀장
소비자보호 모니터단



통영YWCA는 코로나19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소비자보호 모니터단을 구성했다. 지역민의 안전한 소비생활 유도 및 소비자 피해예방, 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로 쾌적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위해제품,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 정보, 의약품 폐기와 관련하여 활동을 할 것이다. 9월에는 폐의약품 처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내 약국을 모니터 한 결과, 통영지역에는 95%이상 폐의약품함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제약회사와 보건소를 통해 안전하게 폐기되고 있음을 모니터하였다.

포항YWCA 김민경 간사
청소년과 함께하는 사랑가득 밀반찬 나눔
포항YWCA는 9월 4일(토), 9월 11일(토) 2회에 걸쳐 생계를 위



협반고 있는 지역 취약계층 80가구 홀몸어르신들께 청소년들과 함께 사랑가득 밀반찬 나눔 행사를 가졌다. 열무김치, 쇠고기장조림을 포함한 영양가득 밀반찬 6가지와 제철과일을 함께 전달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밀반찬 나눔을 통해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청소년들이 봉사를 통해 나눔과 배려를 배우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창원YWCA 김한희 간사
황윤 감독과 나누는 채식 토크



창원YWCA는 2021년 8월, 2차에 걸쳐 온라인(ZOOM)을 통해 '황윤 감독과 나누는 채식 토크'를 진행하였다. 먹거리와 환경의 관계에 대한 토크였으며, 1차 특강 이후 참여자들은 1주일 동안 비건 채식을 함께 실천하였고, 2차 특강에서는 강의와 함께 비건 실천 체험 후기 나눔을 하였다. 먹거리 전환의 필요성과 채식을 연계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과 지구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 창원YWCA는 적색 경고등이 켜진 기후 위기시대에 시민들이 생명을 살리는 먹거리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창해 나갈 것이다.

전라-제주권역

(사)광주YWCA

서정현 부장

사단법인 광주YWCA 창립총회 개최



광주YWCA는 지난 8월 11일(수) 사단법인 광주YWCA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한국YWCA연합회후원회 지부로서의 법적 지위를 벗어나 YWCA 재구조화 정책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법인구조화를 위한 TF팀 구성을 시작으로 오랜숙의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 등록 단독 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사단법인 광주YWCA는 지역사회에서 지역법인 설립을 통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자치성, 투명성, 공공성, 책임성을 가진 시민운동 조직체로서 앞으로도 활발하게 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광양YWCA

황수미 간사

포스코엡텍과 포스웰의 식도락(食, 또 樂)한가위!



광양YWCA는 9월11일(수)추석명절을 맞이하여 무료급식소에서 지역사회의 다문화, 독거노인,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食도樂한가위 행사를 진행하였다. 전통음식(구절감, 갈비찜)과 한국 전통문화체험으로 전통놀이 세트(비석치기, 민속팽이, 제기차기)를 전달하여 전통문화를 알리고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이웃과 함께 추석의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YWCA

황수미 간사

군산YWCA 추석맞이 미니바자회



군산YWCA는 9월 15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7시까지 군산 Y 회관에서 추석맞이 미니바자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미니바자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철저한 방역수칙 및 거리두기를 지키고, 방문하는 방문객을 시간대 별로 참여 할 수 있게 관리하고, 사전예약과 배달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면 판매를 최소화하는 미니바자회로 운영하였으며, 이번 바자회를 통한 수익은 군산Y의 건강한 운영을 위한 재정마련과 함께 연말에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남원YWCA

박희정 간사

Y틴 플로깅 캠페인



남원YWCA는 9월 4일(토) 오전11시 Y틴 청소년들과 함께 남원 YWCA 본부 건물 앞에서부터 남원천변 주변에서 약2Km 거리를 왕복하며, '플로깅'(Plogging)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남원천변은 시민들이 조깅 운동을 많이오는 장소이다. 천변 플로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발견된 것은 플라스틱 종류였다. 플라스틱은 몇 백년이 넘어도 썩지 않는 제품으로 정기적인 플로깅 캠페인이 필요함을 느꼈다. 이에 다음 캠페인은 지역시민들과 함께 동참하여 지역사회 '환경살리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다. 이날 Y틴 청소년들이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약 3시간 정도 장시간 플로깅을 하며, 지역사회 환경운동실천에 작지만 가장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사)목포YWCA

박혜림 부장

슬기로운 양성평등 사회만들기



(사)목포YWCA는 「슬기로운 양성평등 사회만들기」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교육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였다.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초·중·고등학생 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디지털 성범죄 개념·종류·예방법, 일상 속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으로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경계하며 위험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도록 제공하였다. 또한 기계사용을 어려워하는 장년·고령층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스마트폰 활용을 위한 기본기 다지기」 교육은 스마트폰 기본 어플 이해, 온라인장보기·배달주문·대중교통 예매 및 이용 등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기 활용 능력을 제공하였다.

서귀포YWCA

김지희 간사

서귀포YWCA '영상편집과정'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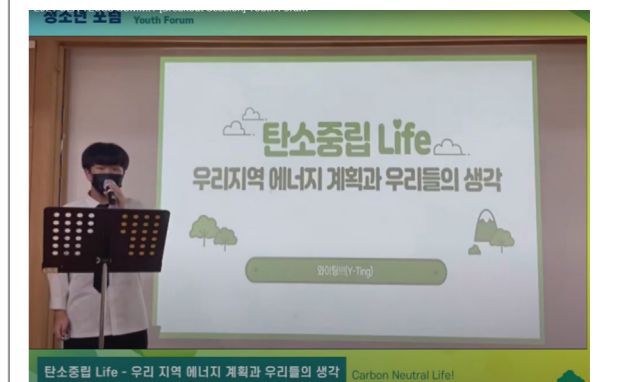
서귀포YWCA 청장년일자리센터는 지난 8월 20일(금) 오후 11시30분 서귀포YWCA회관에서 영상촬영&콘텐츠제작 '영상편집과정' 수료식과 영상상영회를 진행했다. 수료식은 이신선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수료증 수여, 활동영상 상영,

평가 및 소감나누기, 기념촬영으로 진행됐다. '영상편집과정'에서는 편집기술을 활용한 직업 경험을 바라는 구직자 및 청년들의 니즈를 충족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직무기술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어 촬영기법, 편집기술 등의 전문교육이 진행됐다. 본 과정은 청년 미취업자 11명이 참여해 9일, 27시간동안 진행됐다.

(사)순천YWCA

신정옥 간사

청소년포럼 발표



(사)순천YWCA Y-teen은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 실현”이라는 주제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여수에서 개최된 「2021UEA(Urban Environmental Accords:도시환경협약) 여수정상회의」의 <청소년포럼>에서 “에너지 계획과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남해안·남중권 12팀이 진행되는 포럼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순천시의 계획 및 진행 상황 등에 대해 공유하였고, 청소년 주도의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전 세계가 코로나 및 기후위기로 아파하고 있는 이때, 기후 변화를 멈추는 변혁의 주체로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참석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의견도 나누었다.

(사)여수YWCA

김예랑 간사

기후 정의 실현 캠페인

(사)여수YWCA는 9월 24일(금) 공화동사거리 앞에서 기후 위기의 상황 인식과 더불어 기후 정의 실현과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탄소중립 정책 반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도 함께 담아 환경보호 차원으로 종이박스를 재활용해 팻말을 만들어 사용하였



다. 이번 캠페인은 여수시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를 위해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며 시민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여수YWCA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후변화대응과 해양환경보전에 책임감을 느끼며 참여하였다.

익산YWCA 김다영 간사
워킹맘을 위한 워라밸 프로젝트



익산YWCA는 9월 18일(토) 회관 3층 강당에서 익산시 지방보조금 사업 <워킹맘을 위한 워라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문화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자녀 소통 교육 2회, 워킹맘 워라밸교육 1회, 가족전통체험 1회, 힐링 레크리에이션 및 평가 회의로 진행된다. 이날 워킹맘과 초·중등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소통 교육을 실시하여 워킹맘과 사춘기 자녀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교육 후 목공예체험을 통해 가족들이 함께 다과를 즐길 수 있는 우드트레이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YWCA 김은진 국장

2021 젠더문화축제



전주YWCA는 9월 10일(금) 2021 전북젠더문화축제 '너들목, 너의 목소리를 들려줘!'를 온라인 ZOOM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본 행사에 전북YWCA협의회 회원들과 유관기관 참여자 등 총 80여명이 참여했고, 김수진 전주Y이사(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백택 테스트를 통과한 한국영화 속 여성의 위치와 비중의 변화를 알아보고 성 고정관념을 성 평등적 관점으로 바꾸는 장을 마련했다.

(사)제주YWCA 박슬기 간사

기후위기 전시회



제주YWCA는 세계기후의날(FFF, Global Fridays For Future, 9월 24일)을 맞이하여 9월 23일(목)부터 10월 7일(목)까지 2주간 제주YWCA 1층에서 '기후위기 전시회'를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중립에 다가가기 위한 시민운동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탄소중립과 탄소발자국의 정의 설명, 제주YWCA실무자와 회원의 기후위기 한마디 코너와 기후위기에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제주YWCA캠페인 영상이 상영으로 구성되었다.

+ 품격높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과 가족, 요양보호사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요양보호사님” 호칭을 사용합니다.

이런 업무는 **좋아요**

- 신체활동지원
- 인지활동지원
- 일상생활지원
- 정서지원

이런 요구는 **싫어요!**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요구
-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요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요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 과도한 신체접촉, 성적 농담 등 성희롱(폭력), 인권침해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직이며,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어르신” 존칭을 사용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세요**

- 어르신을 존중하는 마음자세
- 청결하고 단정한 복장 관리
- 친절함 태도, 예의 바른 행동
- 어르신께 존칭과 경어 사용
- 지속적으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

어르신들께서 **싫어하세요!**

- 어르신을 차별대우 또는 무시하는 태도
- 친밀함을 이유로 유아어, 반말 등 사용
- 개인비밀, 사생활을 내외부로 발설
- 학대 및 폭력행위, 물질적 보상 요구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